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vol.1

스물스물



삶의 공간
생산의 공간
창작의 공간
공유의 공간
+
실험

술술

영등포는 기술인, 예술인, 마을 주민이
함께 사는 도시입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문화적 상상력을 더하는 실험적
프로젝트이자 이 모든 움직임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술술 vol.1』은
영등포 아카이브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책입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영등포를 기록하는 책 '술술'은 2020년에
개관하는 '술술랩' 공간과 더불어 영등포
공동체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대상지

영등포 경인로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521,000m²)

영등포는 1898년 경인선 개통과 1899년 영등포역 설치 이래 도심 내 산업을 이끌어온 주요 공업지역이다. 1962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5대 부도심 중 하나였으며, 1978년 「2000년대를 향한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7대 핵심 중 하나였다. 1984년 「도시구조 개편을 위한 다핵도시 계획」에서는 3대 부도심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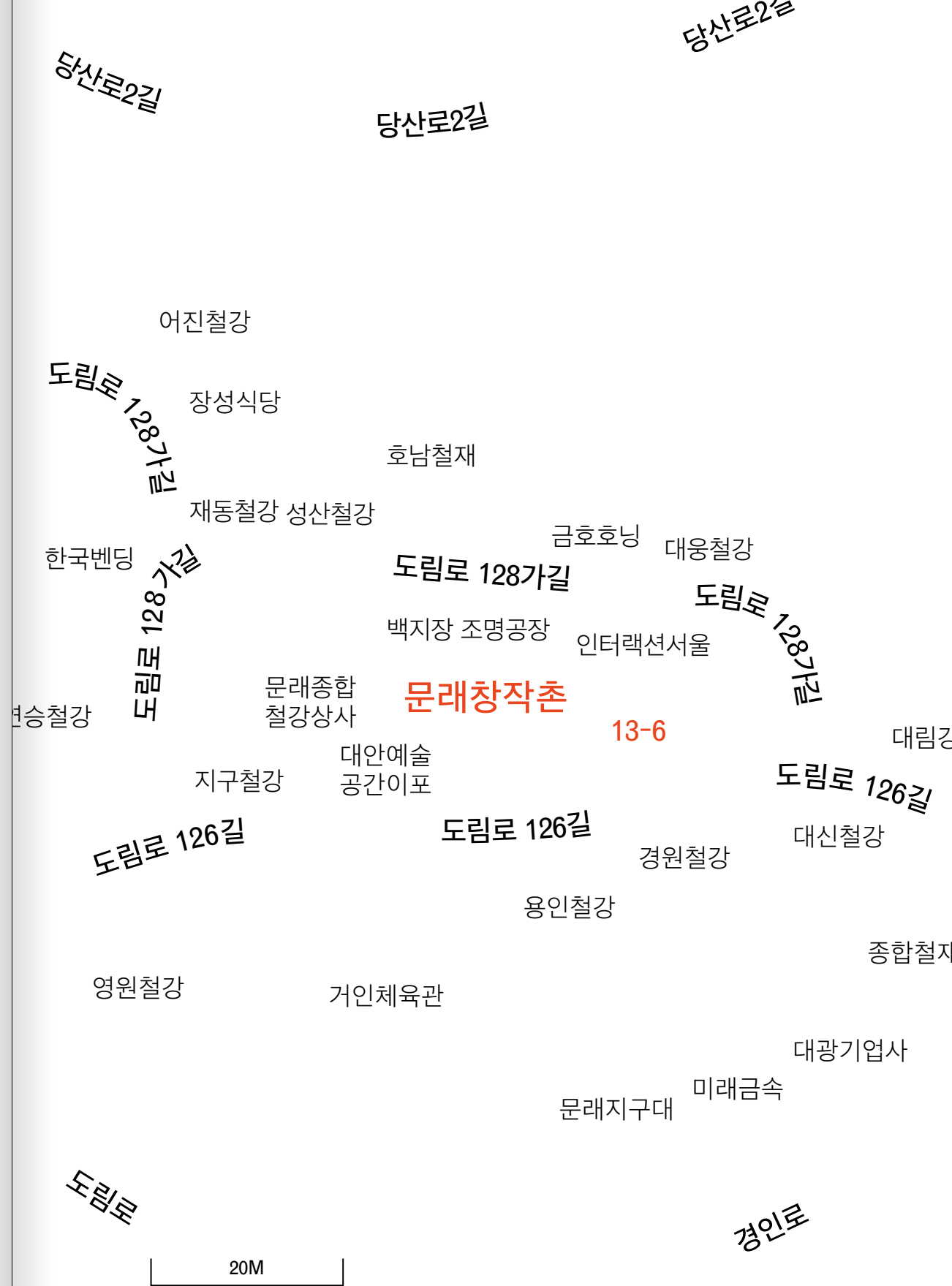
1994년 「공장총량제」 시행으로 큰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공장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지역이 쇠퇴한 듯 보이지만, 영등포는 여전히 도시 전체 생산 기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서울시 공업지역 면적 중 약 33.6%가 영등포에 있었다.



문래창작촌

영등포 문래동 공업지역 일대는 문래창작촌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예술인, 기획자, 창작자, 활동가, 마을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0년대 초 「공장총량제」의 여파로 공실이 된 공장의 공간에 예술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형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문래창작촌에는 공장들과 더불어 다양한 전시 공간, 공연장, 문화공간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예술 작품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사업 거점 공간: 술술랩

영등포구 문래동 2가 20-2
(연면적 636m², 지상 5층·지하 1층)

영등포 경인로 일대에서 다양한 예술과 기술의 협력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영등포구에서 매입한 공간이다. 기존에는 식당과 노래방, 원룸 주거 건물로 쓰였다.

2019년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지원사업 '술술 시범운영 프로젝트'는 이 공간을 운영하고 상상하는 실험으로 채워졌다. 술술랩은 2020년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사업 거점 공간: 술술랩

2019년 술술랩 외부 전경



지금, 영등포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의 시작

영등포는 기술인, 예술인, 마을 주민뿐 아니라 상공인들이 함께 사는 도시입니다. 영등포역이 조성되고, 시장과 공장이 들어서고, 아파트와 쇼핑센터가 생겨나고, 어느 때부터는 그 틈으로 예술인들의 작업장이 자리를 잡더니 지금은 카페나 펍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지역이 활성화되는 동안 영세한 소상공인과 예술가들이 쫓겨나는 일도 찾아졌습니다.

시류에 따라 갑자기 뭔가가 들어섰다가 밀려나고, 또 다른 것들이 들어서는 역사를 반복해온 영등포에서 기술인, 예술인, 마을 주민의 입장 차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각자가 자기 편리와 이익만을 주장하고 활동한다면, 예술과 기술은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역은 주거와 소비의 장소로만 남게 될 겁니다.

예술인, 기술인, 마을 주민, 상공인, 그리고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이 지역 안에서 서로 부딪치고 소통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영등포에서는 '기술'과 '예술', '마을'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각자 처한 곤란을 이해하면서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만남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의 미래인 영등포 지역의 공동체 자산은 한 섬 한 섬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생각하는 손과 몸의 노동을 기반으로 우리 삶을 지탱해온 농업과 공업이 소음과 매연, 토지의 단위 생산력 등을 이유로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 버린 오늘날,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소속감 형성, 사회 공공으로의 기여를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문화와 예술 생산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매연과 소음을 일으키는 산업과 결합했던 기술이 문화예술과 결합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의 고된 관행농업으로 유지되던 농업이 문화예술과 결합한다면 자연의 고마움을 아는 즐거운 노동과 커뮤니티,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영등포 문화적도시재생사업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당사자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연구하고 문화적 상상력을 더해 풀어보는 실험적 프로젝트이며, 앞으로 물리적 공간으로도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의 첫 여정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재

들어가는 말	10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소개	15
문화생산도시리빙랩 13가지 프로젝트	23
리빙랩 제안 프로젝트	
1 문래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리빙랩 ; 조다솔	26
2 분리배출 기술연구소 ; 이소주	34
3 문래가치환원소 문(moon) ; 이용희	42
4 문래간판스타 Part.2 ; 김보배	50
5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 ; 이용재	58
6 나만의 이동형 먹고사는 문제 해결 키트 만들기 워크숍 ; 노정주	66
술술 시범운영 프로젝트	
7 문래동 이동장치 연구 ; 신해철	74
8 문래동 원정기: 문래동 예비이주자의 문래 탐색 대모험 ; 여인영	82
9 세상의 모든 방을 넘나드는 소리의 귀신 ; 오도함	96
10 문래의 언어 ; 신동혁	104
11 '언덕 위의 아루스' 탄생과 성장 ; 장형순	114
12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BLANK LAB ; 김도영	122
13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개인전' ; 양철모	146
술술랩 프리오프닝 '예술기술'	165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의 4가지 질문과 에디터의 시선	179
문화생산도시리빙랩 대담회	191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포럼	203

문화생산도서리빙랩 소개



일
×
놀이
×
학습

예술
×
기술
×
마을

예술인
×
기술인
×
주민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예술인·기술인·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도시와 마을이 처한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문화생산도시리빙랩

리빙랩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며 실행하는
'생활 속 실험실'

술술랩

예술인·기술인·주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운영해 갈
지역 문화협력 공간
(2020년 개관 예정)

예술과 기술의 마을,
삶의 예술을 꿈꾸는
'생활 속 실험실'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이하 문화재생사업)은 쇠퇴지역 내 공공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이다. 영등포구는 문래창작촌을 중심으로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이라는 사업을 제안하여 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이후 1년여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생산'의 가치와 '리빙랩'이라는 방식을 결합하여 만든 명칭이다. '생산'이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생산활동, 예술의 '창작'과 기술의 '창조'를 의미하며, '리빙랩'이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기술인·주민 등 지역 주체가 스스로 협력하여 마을 이슈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의 대상지는 영등포역 주변과 경인로 일대로서 기계금속 산업밀집지대와 문래창작촌이 있는 곳이며, 이곳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경부·경인 철도교통이 발달했던 영등포는 과거 기계·섬유·식품 등 근대 제조 산업의 중심지였다. 조선피혁, 경성방직, 조선맥주 등이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대형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자리에는 아파트,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섰고 이후 도시 기능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문래동 1~4가 방림방직 공장부지와 자동차 정비 단지 부지, 하이트 공장부지는 아파트와 아파트형 공장 건물 등으로 재개발되었다.

신식 건물과 대단지 아파트가 문래창작촌 주변을 병풍처럼 둘러싸면서 영등포역 주변과 경인로 일대는 '섬'이 되어 쇠퇴의 국면을 맞이했다. 이 지역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남아 있고 기계금속 시제품을 제작하는 장인들의 솜씨도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공장은 기술인의 노령화, 공장의 영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장 폐업, 일자리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 안에는 자생적인 예술인 마을, 문래창작촌이 위치하고 있다. 10여 년 전, 홍대와 대학로 일대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자 예술인들은 문래동의 비어있는 공장 공간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후 예술인들의 입주는 활발해졌고, 현재는 수 백 명의 예술인들이 자생적인 마을을 형성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곳은 기술에 의한

‘생산’과 예술에 의한 ‘창작’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문래창작촌에는 예술인의 작업실, 전시장, 공방 등의 문화공간과 공장들이 혼재하고 있는데, 한낮에 공장들이 요란한 기계 소리를 내며 돌아가다가도 저녁이 되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잠잠해진다.

이곳의 다채로운 풍경은 유명세를 타서 수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을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제 공장과 작업실 등의 공간 임대료도 상승했다. 영세한 공장들은 카페, 수제 맥줏집, 퓨전식당 등의 상업공간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이용하던 기술인, 예술인, 활동가들은 다시 젠트리피케이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마을 예술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위기에 대응하고 스스로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하여 ‘문래마을예술인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지역에 건강한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협력과 공존을 운영 원리로 하는 공동체 모임 ‘영등포공유원탁회의’도 생겨났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문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험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술인, 기술인, 마을 주민이 서로를 발견하고 스스로 협력의 생태계를 형성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 예술인들의 창작이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생산활동이 되도록 하고 ▶ 문래동 기술인들은 예술인-주민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하청 주문 생산자에서 도시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속 가능한 기술생산자로 거듭나게 하며, ▶ 영등포역·경인로 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장기반 전환기술 교육과 예술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목적에 따라 ‘자원 발굴 및 지원사업, 거버넌스 구축, 술술랩 공간 조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했다. 영등포의 도시문화 자원을 아카이브하고 예술인·기술인·주민이 함께 협력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문래창작촌 일대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문화재생 공유테이블, 술술랩 프리오프닝 오픈주간 행사, 아카이브 포럼 등을 함께 운영했다.

총 사업

자원 발굴 및 지원사업	— 도시자원 아카이브
	— 리빙랩 제안 프로젝트
	— 술술 시범운영 프로젝트
	— 리빙랩 오픈 주간과 성과 공유

거버넌스 구축	— 문화재생 공유 테이블과 협의체 운영
	— 포럼
	— 컨설팅

공간 조성	— 술술랩 공간 구상
	— 술술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지원사업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협력 생태계를 형성하는 과정형 프로젝트로서 대상 범위에 따라 ‘리빙랩 제안 프로젝트’와 ‘술술 시범운영 프로젝트’의 두 가지 유형의 문화 실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리빙랩 제안 프로젝트

영등포·문래동 일대 지역 문제를 문화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 실험 프로젝트

술술 시범운영 프로젝트

술술랩 공간 활용 및 운영 모색을 위한 문화 실험 프로젝트



문화생산도시리빙랩 13가지 프로젝트

ONLINE SHOW

리빙랩 제안 프로젝트

- ① 문래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리빙랩 ! 조다솔
- ② 분리배출 기술연구소 ! 이소주
- ③ 문래가치환원소 문(moon) ! 이용희
- ④ 문래간판스타 Part.2 ! 김보배
- ⑤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 ! 이용재
- ⑥ 나만의 이동형 먹고사는 문제 해결 키트 만들기 워크숍 ! 노정주

술술 시범운영 프로젝트

- ⑦ 문래동 이동장치 연구 ! 신해철
- ⑧ 문래동 원정기: 문래동 예비이주자의 문래 탐색 대모험 ! 여인영
- ⑨ 세상의 모든 방을 넘나드는 소리의 귀신 ! 오도함
- ⑩ 문래의 언어 ! 신동혁
- ⑪ '언덕 위의 아루스' 탄생과 성장 ! 장형순
- ⑫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BLANK LAB ! 김도영
- ⑬ 아트프로젝트 텃빈곳 '개인전' ! 양철모

①

문래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리빙랩

조다솔



프로젝트명	문래 새활용 플라스틱 제품 리빙랩
대표	조다솔
연락처	cds3481@gmail.com instagram.com/losadstudio
사업 기간	2019.10~2020.1
사업 장소	로사드 스튜디오, 문래동 2가 43-3
사업 목적	주민 참여로 수거한 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를 다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플라스틱 새활용 제품으로 구현하여 제공함으로써 윤리적 소비 증진과 플라스틱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플라스틱 쓰레기 분쇄 및 압착 장비 제작 — 재활용 플라스틱 소품 개발 — 플라스틱 환경 성분 분석과 안정성 포럼 — 장비 체험 실내외 이벤트·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취재	정윤희

인터뷰 영상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이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디자이너 조다솔 씨는 환경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을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해 '문래 새활용 플라스틱 제품 리빙랩'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본 프로젝트는 세 가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한 소품을 제작하고 둘째, 이 소품을 제작할 플라스틱 분쇄기 및 압착기를 제작하며 셋째, 사회적 자원순환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세미나 진행하는 것이다.

조다솔 씨의 작업실 테이블은 각종 기계와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로 완성된 소품들로 가득하다. 소품 제작을 위해 수집된 플라스틱 쓰레기들도 여러 개의 자루에 담겨 있었다. 모두 세척과 건조를 마친 후 색깔별로 분류된 상태였다. 세척이 완료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쇄기에 넣으면 작은 조각이 되어 배출이 되고, 이를 모아 압착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200℃가 넘는 열을 가하면 대리석 문양과 비슷한 색감을 지닌 제품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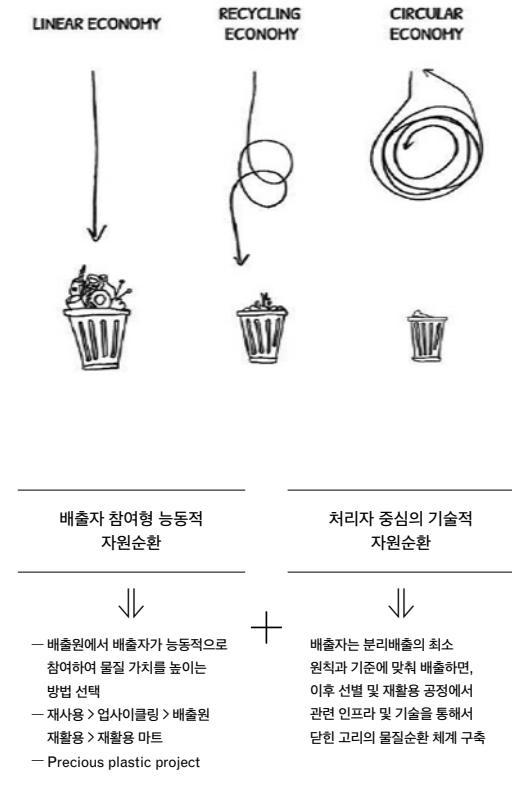
플라스틱 조각은 특성에 따라 열을 가했을 때 녹는 정도와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멋스러운 패턴을 낼 수 있다. 사용된 플라스틱은 재질에 따라 빛을 통과시키는 정도도 달라서 조명 캡의 매력적인 소재가 된다. 또한 완성된 소품들은 분쇄의 과정을 거치면 재사용이 가능한데 이미 세척과 처리가 끝난 상태의 재료이기 때문이다.

조다솔 씨는 현재 조명캡과 인테리어용 타일을 완성했지만 추후 다양한 일상 소품들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한다. 기성제품보다는 가치 있고 색다른 제품을 찾는 소비문화, 가치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가치소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제품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게 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예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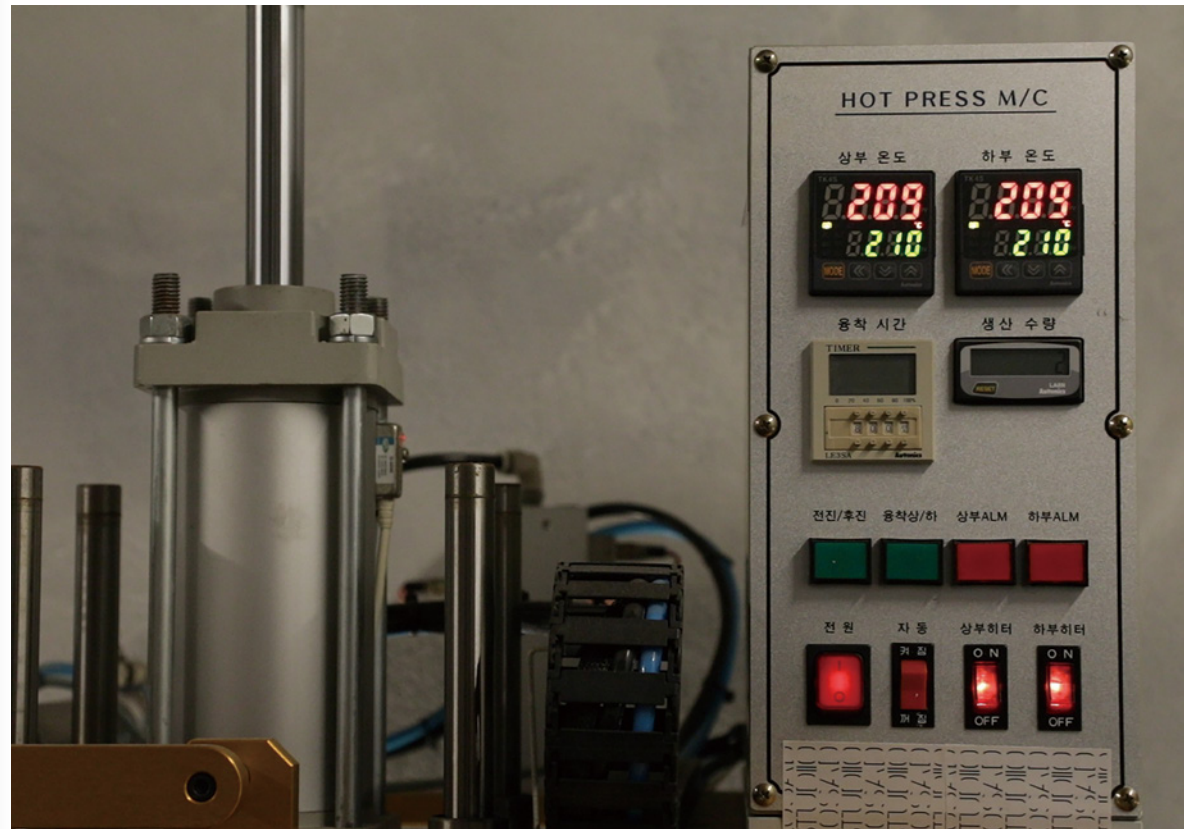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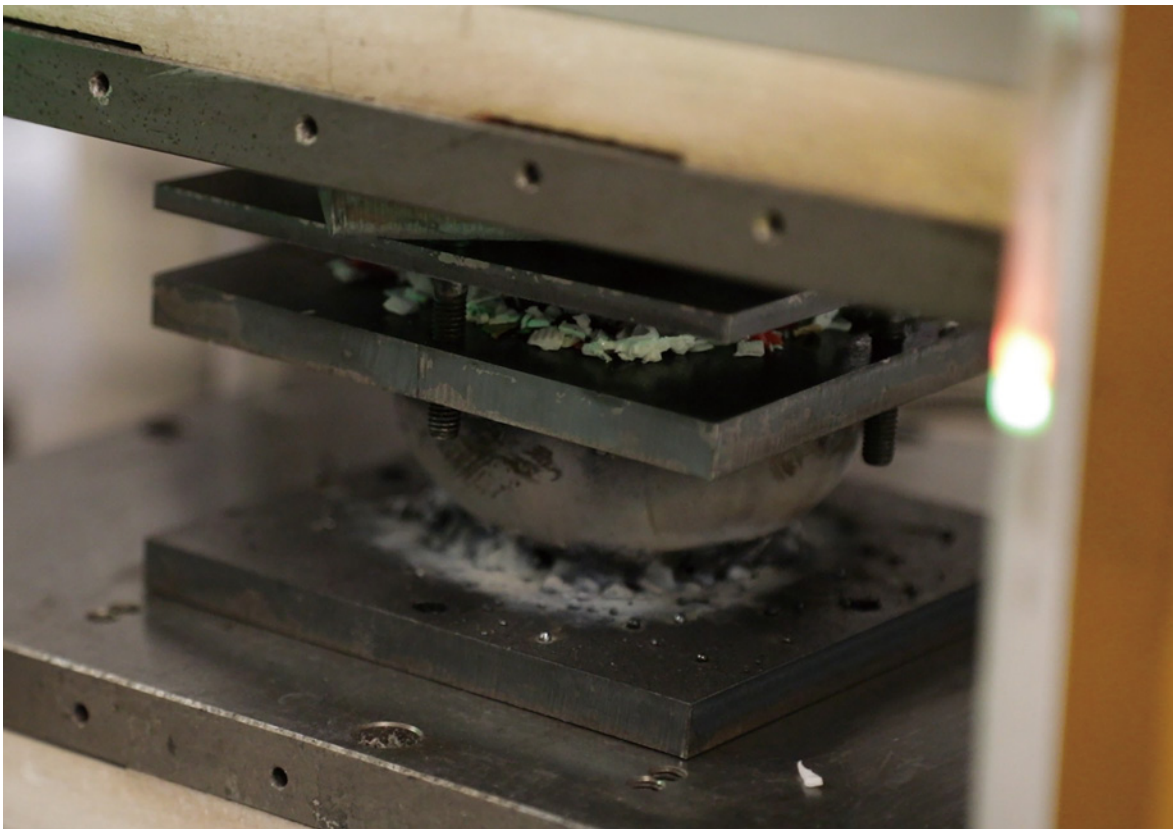
조다솔 씨가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분쇄기 제작에 매달렸던 것은 2년 전부터였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보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플라스틱 분쇄기를 처음 구상했던 당시에는 프레셔스 플라스틱¹이라는 오픈소스를 많이 공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고 분쇄기에 제작에 필요한 기술자를 찾아가서 장비를 제작해보았다. 기계제작은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쳤으나,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을 통해 기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문래 새활용 플라스틱 제품 리빙랩〉 프로젝트에서는 소품, 기계제작과 함께 세미나도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플라스틱 재료의 화학적 성질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자원순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홍수열 소장은 세미나에서 배출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 모델과, 보다 큰 틀에서 생산자 혹은 처리자가 자원을 순환시키는 모델,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조다솔 씨는 이번에 기획한 프로젝트가 두 가지 모델 중 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며,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되었을 때 자신이 개발한 제품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¹ Precious Plastic
네덜란드 디자이너 데이브 허켄스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하고 그 도면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던 프로젝트





②

분리배출 기술연구소

이소주



프로젝트명	분리배출 기술연구소
대표	이소주
연락처	chamisl75@hanmail.net instagram.com/cafe_greenhero
사업 기간	2019.8~2020.1
사업 장소	문래캠퍼스 내 분리배출기술연구소, 문래동 3가 58-15
사업 목적	분리배출이 용이한 도구를 영등포 기술인의 자문을 통해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지역 기술인의 기술 활용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환경을 위한 일상 속 실천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사업 내용	- 페트병 분리배출 기술 연구와 시제품 제작 설치 - 시제품 시연회 및 제작 과정 공유 전시
취재	정혜진

인터뷰 영상



»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환경 의식이
높은 편이어서, 분리배출 비율은 높지만
재활용률은 낮아요. 특히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2%가 안 됩니다.² 자원이
되지 못한 페트병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땅속에 쓰레기로 묻히거나 숲에서
태워지는데 이는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죠.”

‘페트(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의 여러 종류 중 다시 쓰기 가장
좋은 소재다. 하지만 무·유색 페트병을 혼합
배출·수거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페트병의
재활용이 제한적이다. 페트병을 분리수거해야
함은 알고 있지만 붙어있는 라벨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를 분리하려고 해도 강력한 접착제가 붙어있어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소주 씨는 <분리배출
기술연구소>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분리배출 순환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1년여의 시간 동안 분리배출 도구들을
구상했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연구했다. 철을 활용한 분리배출 도구들은 문래동
철공소 장인들에 의해 한 땀 한 땀 시제품으로
제작되었다.

» “일이라는 게 그저 똑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관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과정’을 견디는 게 필요하죠.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면서 서로의 삶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지역에 계신
소공인분들과 협업하면서 제가 지향한 건,

서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내는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페트병을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자체
운영 중인 문래캠퍼스 한쪽에 ‘분리배출 실습장’을
마련했다. 페트병을 깨끗이 세척할 수 있는
싱크대와 건조대, 천연 수세미와 천연 비누와
같은 친환경 제품,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분쇄기,
분리배출 수거함 등을 배치했다.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시제품
시연회와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전시회도 열었다.

» “지금 봄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곧 겨울이
오는 것처럼, 사람은 사계절을 사는 거죠.
봄만 사는 줄 착각하고 계속 쓰레기를
버린다면 언젠가의 겨울에는 후회하는
때가 올 겁니다. 환경 문제든, 지역을
살리는 문제든, 모두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방향을 맞춰가다 보면 그
다음 한 발짝을 뚝 수 있는 거죠”

그의 말에 따르면,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이들은 종종 일상적 고통(?)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오늘부터 플라스틱 사용, 절대 안 할
거야!’와 같은 극단적인 다짐을 했다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자괴감 심지어 자기부정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요!’라는 메시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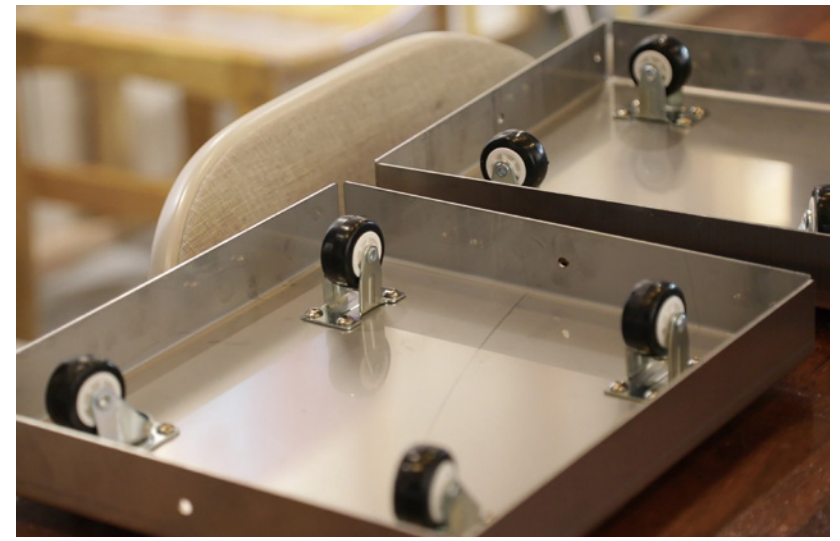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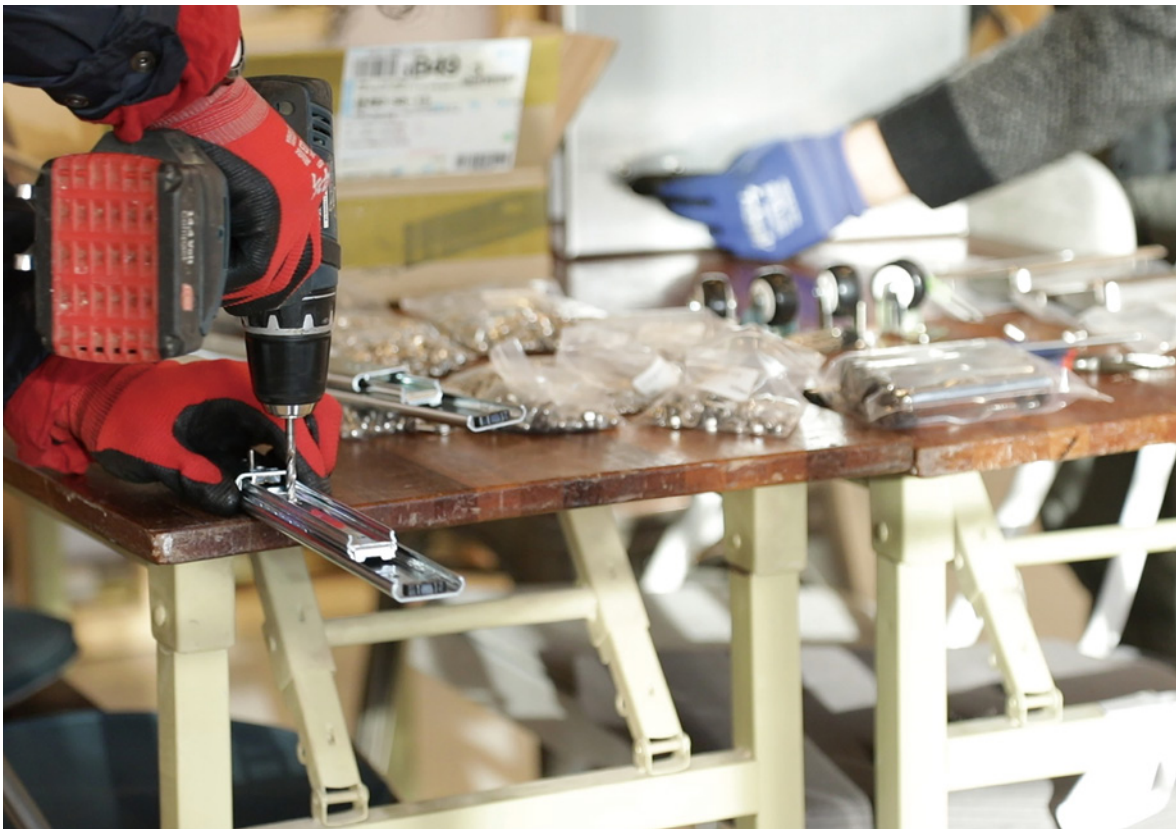
절대적인 강박에 자신을 가두기보다 평소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금씩 줄여간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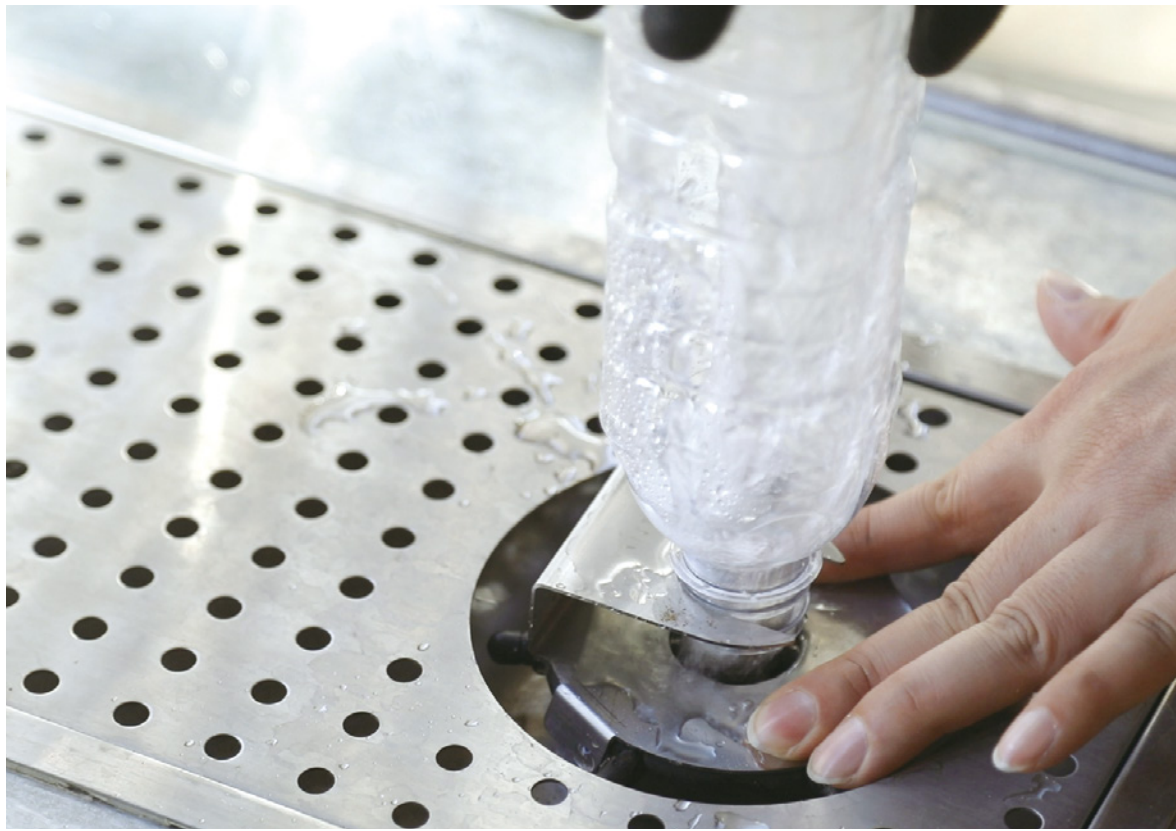
대체품을 사용해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는 일상의 선순환을 만들어보라고
제안한다.

» “유럽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리빙랩(Living Lab)의 사례나 성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문화재생산업에서
어떤 ‘사회적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지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장이 부족했다고
봐요. 문화예술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현재 환경 실천에 대한 죄의식은 줄이고
이해도는 높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과 만화
교재 등을 개발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분리배출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쌓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앱, ‘플리몬’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 분리배출
시스템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웹툰 등 다양한 실천
맵을 구상 중이다.

²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 중 재활용이 가장 쉬운 1등급
제품의 재활용률은 1.8% (2015년 기준)





③

문래가치환전소
문(moon)

이용희



프로젝트명	문래가치환전소 문(moon)
대표	이용희
연락처	lyh750719@hanmail.net
사업 기간	2019.10~2020.1
사업 장소	문래가치환전소, 문래동 3가 58-37
사업 목적	지역쿠폰 '문(moon)'의 발행을 통해 문래창작촌을 가꾸어 온 다양한 계층에게 지역의 가치와 이익이 선순환 되는 구조 마련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공방과 가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쿠폰 제작과 판매 - 사용자 소개 및 상품권 사용방법 안내 사이트 제작 mullatecommune.modoo.at
취재	정윤희

인터뷰 영상



〈문래가치환전소 문(moon)〉은 마을의 공방과 가게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쿠폰 '문(moon)'을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프로젝트이다.

판매는 2019년 10월부터 시작했고, 사용은 2020년 1월 15일까지 가능했다. 지역쿠폰 판매는 문래동 3가에 위치한 '문래가치환전소'에서 이루어졌다. 구매자들은 현금 9,000원을 지불하면 '문(moon) 10,000원 권'을 구매할 수 있었고, 현금 50,000원을 지불하면 60,000원 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지역쿠폰 문(moon)은 사전에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사용처를 지정하기 위해 이용희 씨는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본 프로젝트의 참여를 수락한 공방과 가게 12곳이 사용처가 되었다.

이용희 씨가 〈문래가치환전소 문(moon)〉을 기획하게 된 것은 최근 마을이 급변하고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었기 때문이다.

» “최근 이 지역의 건물주가 바뀌고, 상권이란 게 생겼어요. 급변하는 마을 안에서 누구를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평소 친하게 지내고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사이면 이웃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던 거죠.” ◀

그가 마을 안에서 누가 이웃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은 마을의 순환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 “문래창작촌이라 불리는 곳이 생겨나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은 일종의 사회적 가치가 생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거나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이 돌아가야지만 그 사회적 가치가 지속되고 강화될 수 있어요.” ◀

이용희 씨는 사람들이 〈문래가치환전소 문(moon)〉에 대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단순한 형태로 설계를 했다고 한다. 우선 단순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용자와 사용처의 의견을 취합해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보완해가기로 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니 사람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빨리 이해했고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다른 부분은 이 시스템이 앞으로 확장할 수 있으려면 사용처의 지지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손님들이 내미는 상품권을 가게나 공방에서 호의적으로 받아야 프로젝트 운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용처 12곳은 처음 이 프로젝트의 참여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며 프로젝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근처 가게와 공방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 역시 자신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사용자와 사용처 사이의 돈독한 관계가 다져질 수 있었다. 지역쿠폰 문(moon)의 사용 마감일인 2020년 1월 15일부로 이 프로젝트는 종료되었다.

이용희 씨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구매자가 지역쿠폰 문(moon)을 구매하면서 얻는 할인 폭을 문래가치환전소가 고스란히 적자로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한다. 만약 이 프로젝트의 운영이 사용처의 실질적인 매출 상승효과로 이어진다면, 이로부터 상승한 이익의 일부를 문래가치환전소 운영을 위하여 환원시켜달라고 요구해볼 수도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전담할 수 있는 상근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래가치환전소가 일부 지지자나 내부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확산이 되려면 그것을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 상품권은 현금의 속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위탁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희 씨에게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의미는 이러한 형태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쿠폰 문의 판매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쿠폰 문은 사용마감일까지 총 600만 원어치가 유통되었다.

사용처

식음료 | 더 워리어(로스터리 카페)
 썬표말랑(카페, 식당)
 밀면맹기리(식당)
 올드문래(카페)
 차밍(드립커피 전문)
 삼부리(식당)

공방 | MOMU 가족공방(원데이 수업)
 나무늘보 공방(원데이 수업)
 Jo은공방(은공방)

전시/공연 | 아지트(고양이블루스 전시)
 스튜디오QDA(마임극장)

구매처

문래가치환전소(문래동 3가 58-37)
 나무늘보공방 골목

사용 기한

2020년 1월 15일까지





김보배



프로젝트명	문래간판스타 Part.2
대표	김보배
연락처	bbmanse@naver.com
사업 기간	2019.10~2020.1
사업 장소	스페이스 목금성 / PofP(Piece of Peace), 문래동3가 58-77
사업 목적	문래동 공장들의 오래된 새시 문의 시트지와 간판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이를 가지고 자료집을 제작하고 전시와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빙 자료집 제작 - 전시 진행 - 워크숍 진행
취재	정윤희

인터뷰 영상



김보배 씨가 공장의 간판과 시트지 글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문래동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던 4년 전이었다.

» “처음에는 간판의 글씨들이 예쁘고 멋져서 핸드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이 작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

그가 이 작업에 책임감을 느꼈던 건 최근 들어 마을 골목의 간판들이 바뀌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이 상업공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공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나 간판이 교체되기도 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간판 교체사업’은 골목의 풍경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문래간판스타 Part.2〉는 간판의 글자들과 공장 새시 문에 새겨진 시트지 글자들을 사진으로 모으는 작업이다. ‘문래간판스타’의 두 번째 버전으로서, Part.1은 2018년 문래예술공장 MEET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Part.1이 공장의 입구나 간판의 글씨체를 모으는 작업이었다면, Part.2는 이 작업과 함께 사라져버린 간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공장의 간판과 새시 문에 새겨진 ‘선반’, ‘밀링’, ‘연마’, ‘부품가공’, ‘와이어 커팅’ 등의 글자들은 그 공장이 맡고 있는 공정을 나타낸다. 마을에서는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공장들이 공정을 나누어 맡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나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공장이 어떤 공정을 처리하는 곳인지 훤히 볼 수 있도록 글자를 새겨 놓는 것이다.

김보배 씨는 간판과 새시 문에 새겨진 글씨체가 그 자체로도 멋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장인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여겼다.

» “장인이 되기까지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어온 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라고 생각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마을의 스타이자 마을을 잘 나타내는 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마을에서 누가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이곳을 문래창작촌이나 맛집이 있는 핫플레이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을 통해서 모은 〈문래간판스타 Part.2〉의 자료들은 〈술술랩 프리오프닝〉에서 전시했으며 책으로도 발간되었다. 김보배 씨는 이 작업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 작업의 최종 목표는 간판의 글씨체들이 폰트로 상용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

이용재



프로젝트명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
대표	이용재
연락처	www.leeyongjae.com instagram.com/leeyongjae_architects
사업 기간	2019.10~2020.1
사업 장소	이용재아키텍츠,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33다길 4 B1F
사업 목적	문래동 문래마을의 도시조직 및 건축의 물리적 변화와 도시구성원의 관계를 깊이 논의하고, 현재 도시건축을 기록하고 조사할 건축가들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문래동의 도시조직 및 건축의 물리적 변화와 도시 구성원의 관계 연구 — 현재의 도시 건축을 기록 및 조사하는 목적의 건축가 협의체 구성 — 도시건축 리서치의 결과 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
취재	정혜진

인터뷰 영상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을 걷다 보면,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이 들어서 있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쪽방촌과 폐공장도 혼재돼있다. '문래창작촌'도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철공소 골목 사이사이로 예술가의 작업실, 카페, 식당 등이 겹쳐있다. 이 복잡한 동네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건축가 이용재 씨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했다.

»“문래동에 주목한 이유는 ‘공유성’이 독특해서죠. 바뀌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현재’의 도시공간을 기록함으로써 도시건축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남기고 싶었어요. 5명의 건축가가 모여 문래동의 인식 지도(Map)를 제작해보자 했죠.” «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은 현재 문래동 도시건축 및 도시조직의 변화를 기록, 도시 구성원의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문래의 미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협의체다. 건축가 조서연은 광의의 문래를 도시 건축의 관점에서 넓고 넓게 바라보기, 건축가 이호선은 철공소 한 곳을 내부 실측하여 유형화시키는 작업, 건축가 황동욱은 3D 스캔을 통해 문래의 오래된 건물이나 재료들을 남기는 작업을 했다. 이용재 씨와 성수동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계한 강예린 건축가까지, 이들은 건축가로서 바라본 문래동의 특징을 기록하고 리서치의 결과물을 함께 이야기하는 포럼을 진행했다.

건축가들의 눈에 띈 것은 대형 백화점이 있는 영등포역부터 성매매집결지, 철도와 광역의 블록들이 만나는 경계 부분, 구획된 아파트단지와 철공소나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혼재된 장소의

경계 부분 등 ‘긴장감을 주는’ 공간들이었다. 독특한 경계에 대한 발견은 새로운 인지가 뜻밖의 수확이었다. 이러한 경계들이 그저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문래동의 풍경에 걸맞게 디자인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다.

»“문래동에 여러 요소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상적이고 친환경적인 부분이 동네 사이사이에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봐요. 낮에도, 밤에도 부드러운 도시 풍경이 된다면 그게 도시재생의 좋은 그림 중 하나가 아닐까요. 또 하나, 소상공인이나 예술인, 주민들이 오가며 마주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축가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문래동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리서치와 아카이빙을 위한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시건축이나 도시조직에 대한 아카이빙은 개인이 다 하기 쉽지 않은 일이므로 서울시나 영등포구 등 지역의 지원을 통해 이뤄나가려고 한다. 가까운 미래에 ‘술술랩’이 문래동의 누구나,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 포럼

2020. 1. 3. 15시, 영등포문화재단 회의실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 참여 건축가들은 영등포 지역 공간을 리서치한 후,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포럼을 개최하였다.







⑥

나만의 이동형 먹고사는 문제
해결 키트 만들기
워크숍

노정주



프로젝트명	나만의 이동형 먹고사는 문제 해결 키트 만들기 워크숍
대표	노정주
연락처	jungjoohaeng@gmail.com instagram.com/livelearnrunproject
사업 기간	2019.11~2020.1
사업 장소	LLRP,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31길 18
사업 목적	예술인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동형 커피바 키트를 제작하고 제작과정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이동형 커피바 제작 - 예술가들의 먹고사는 문제해결키트 제작 워크숍 및 제작키트 전시

취재 정혜진

인터뷰 영상



노정주 씨가 '이동형 커피바'를 만든 건 문래동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속 가능한 예술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였다. 2017년 '여과생활'이란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지역의 철공소 장인들과 철제로 된 '이동형 커피바'를 처음 제작했다. 이동에 용이하도록 무게나 작업 높이, 편의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디자인을 했고 엔지니어에게 레이저 커팅, 절곡을 의뢰했다. 철제에 적합한 볼트와 너트 등 일부 재료들은 철공소 장인의 도움을 받아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 만들었다.

»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스케치’가 정확한 결과물로 구현된다는 거죠. 지금은 작업의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요. 어떤 순서에 장인 분들에게 작업을 맡기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의뢰하면 좋은지에 대해 저만의 노하우를 정립하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19년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동형 커피바를 새로 만들었다. '지게'에서 착안해 어깨와 등에 메고 돌아다니면서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소형 커피바다. '핸드드립'이라는 방식이 여과지를 통해 커피를 추출하는 것처럼, 지역의 창작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문래동의 '지금'을 만나게 된다.

» “작품만 팔아서 생계유지가 가능한 작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부 소상공인분들은 작가들이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공간을 차리는 줄 아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젊은 친구들이 먹고살겠다고

가게를 열어도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해요. 얼마 전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역에 있는 이런 오해들을 풀기 위해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작가들은 같은 세입자가 아닌 이방인이자 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작가들의 힘든 작업 환경을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잘 돼야 하는데'라며 응원의 말을 건네다가도 '먹고살기 위해' 가게를 여는 사람들에게는 따가운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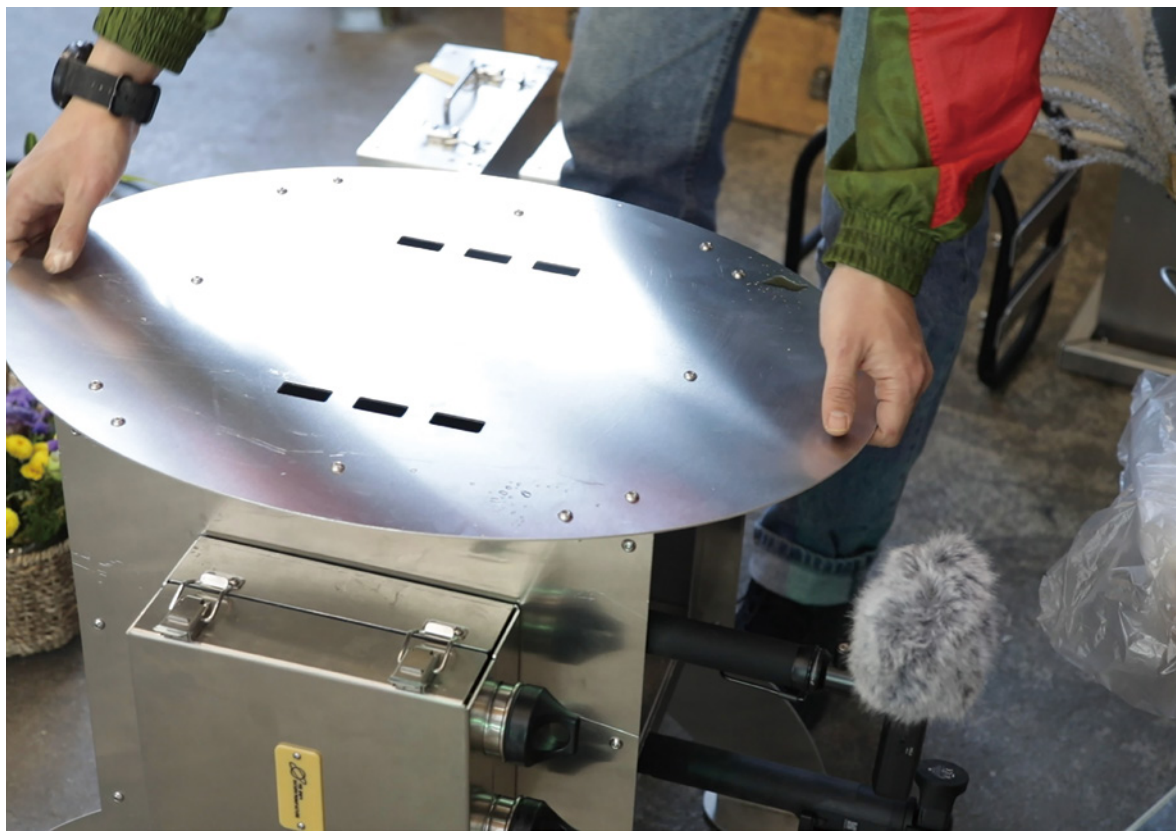
» “예술가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죠. 제가 작업실을 카페 공간으로 활용해 월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다른 작가들도 작품 이외의 다양한 활동으로 먹고사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고민에서 기획된 것이 <나만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키트 만들기 워크숍>이다. 앞서 제작한 이동형 커피바를 매개로 여러 작가를 만나면서 키트제작에 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으며, 그중 한 개를 선별해 디자인부터 설계, 가공 및 전시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 물론 키트 제작만으로 예술가의 먹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야 없을 것이다. 하지만 키트제작, 워크숍, 전시 등 연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창작자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 “향후 '술술랩'이 취지에 맞게 워크숍을 많이 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철공소 장인 분들이 상주하면서 공구 다루는 법이나 3D프린터 작동법 등 기술적인 측면을 알려주시고, 예술가는 그걸 배워서 워크숍이나 예술교육을 하면 어떨까요? 시민들이 이곳에 들르면 '문래 지역의 작가들이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³ 노정주 씨는 '유 퀴즈 온 더 블럭' 27회 '문래동' 편 (2019.07.23 방송)에서 '문래동 조정치로 화제가 되었다.'





신해철



프로젝트명	문래동 이동장치 연구
대표	신해철
연락처	www.criticalmasslab.com
사업 기간	2019.11~2020.1
사업 장소	critical mass LAB architects, 문래동2가 44-14 302호
사업 목적	지역의 기술인들이 공정 중인 제품을 지역 내 다른 공장으로 옮길 때이용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개발하고 제작하며, 이를 전시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문래동 이동장치 제작 - 전시
취재	정윤희

인터뷰 영상



문래동에는 여러 개의 작은 공장이 제품 제작에 필요한 공정을 나누어 맡는 경우가 많다. 제품들은 제작과정에서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옮겨 다닌다. <문래동 이동장치 연구>는 바로 이 이동의 과정에서 기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 “현재 마을의 기술자들은 이동 수단으로 수레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주로 사용합니다. 만약 물건을 싣는데 효용이 주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예쁜’ 이동 수단이 있다면, 그래서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에 자주 띄게 된다면 그것은 마을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해철 씨는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이자 지역 예술인이다. 이번에 완성된 문래동 이동장치는 평소 주변 기술인들과 친분을 쌓아왔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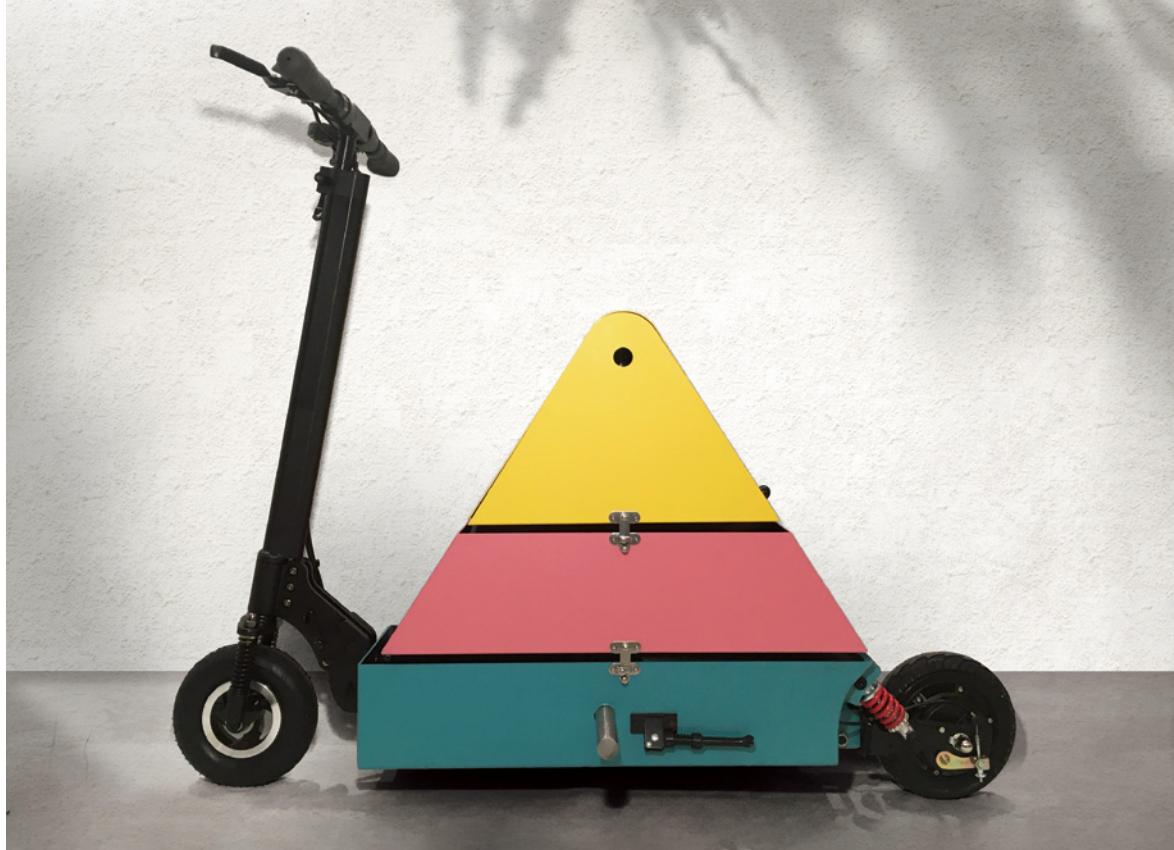
» “이번 작업은 기술 반, 예술 반 작업이었어요. 마을에 친한 기술자들이 많고,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작업들을 늘 고민하는 편이에요.”

문래동 이동장치의 디자인은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먼 발치에서 그들이 싣는 물건들과 그것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보았다. 평소 아무리 이들과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치열하게 돌아가는 일상의 흐름에 누가 될까 싶어 처음 프로젝트를 설계했을 당시에는 스스로 조용히 자료를 모았다고 한다.

»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마을 기술인들과 프로젝트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료 수집이 끝난 후 그는 작은 골목을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전동 키보드 위에 여러 칸의 수납박스를 달아놓는 형태로 도면을 완성했다. 수납박스의 움직임, 고정 장치 등 세부적인 부분은 함께 작업한 기술인들의 아이디어로 완성되었다. 완성된 도면을 바탕으로 장치의 제작은 마을의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올해 처음 제작된 장치인 만큼, 기술인의 일상에 실제로 사용이 되기까지 몇 가지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의 기술인들이 문래동 이동장치를 타고 이곳저곳을 누비는 알록달록한 풍경은 독자들이 직접 상상해 보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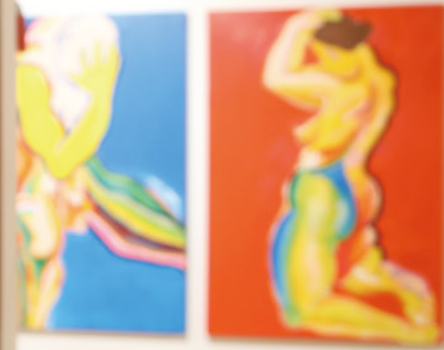


문래동 원정기:
문래동 예비이주자의
문래탐색 대모험

여인영

문래동 원정기 참여작가전
그도 그하(밤,)
찾아온
당신에게 .

6



프로젝트명	문래동 원정기 : 문래동 예비이주자의 문래탐색 대모험
대표	여인영
연락처	yeovely93@naver.com instagram.com/artist_yeo_
사업 기간	2019.10~2019.11
사업 장소	문래동 일대, 술술랩 206호
사업 목적	문래동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문래동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예술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작가와의 만남 — 문래동 작업실 투어, 부동산 투어 — 참여작가전 <고독한 밤, 찾아온 당신에게>
취재	정윤희

인터뷰 영상



<문래동 원정기: 문래동 예비이주자의 문래탐색 대모험>(이하 <문래동 원정기>)을 기획한 여인영 씨는 청주에서 작업하는데 주변에 동료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예술 작업은 자기와의 싸움이기에 예술인들은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고 그만큼 자기 생활에 고립될 가능성도 높다. 여인영 씨는 서울 문래동으로 이주를 고민하며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작가를 만나고 싶어서, 문래창작촌을 탐방하는 <문래동 원정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작가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이들이었어요.”

프로젝트 공고문에 적힌 기획의도를 보고 여러 예술인들이 참여 신청을 했다. 이들은 10월 25일 첫 만남을 가졌다. 그전까지는 서로 알지 못했던 이들이었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 들떠 있는 기분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 “몰려다니는 재미가 이런 걸까? 어색하고 들떴다. 우리의 작업은 한데 모여 있고, 같이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춤을 췄다. 첫 만남도 무겁거나 긴장이 서려 있지 않았다. 갑작스레 비가 오고 날이 추워져 자리를 옮겼지만 모두 단후했다.”

— 이서, <문래동 원정기> 참여 후기 중에서

여인영 씨는 문래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또래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강주형 씨를 초대했다. 이전에 청주에서 활동하다가 우연히 만난 작가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참여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술술랩 현장을 함께

바라보았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문래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참여작가전: 고독한 밤, 찾아온 당신에게> 전시를 함께 설치했다.

두 번째 만남은 11월 2일에 이루어졌고, 이날은 문래동 작업실 투어를 진행했다. <문래동 원정기> 참여자들은 문래창작촌에 대하여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수많은 예술인이 마을을 형성하며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심도 많았으며, 문래동에 이주를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마을탐방은 문래동 이주를 위한 탐색의 시간이기도 했다. 문래동에서 활동하는 작가 이승훈, 강주형 씨와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개인전'> 기획자인 양철모 씨의 작업실을 찾아가 작업과 마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세 번째 만남이 있던 11월 15일에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다. 그러면서 청년작가로서는 넘기 힘든 현실의 벽에 부딪치기도 했다. 작업실 임대료가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기도 했고 매물 자체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곳에서 기존에 터를 잡고 있던 예술가들도 빠져나오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각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도 느꼈다.

» “이 지역 안에서 작가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함께 터전을 가꾸고 소통하며 생활하는 모습이 좋게 느껴졌죠. 물론 그것을 텃세로 느낀 작가들도 있었습시다.”

탐방프로그램과 전시를 마친 참여자들은 각자의 작품과 후기를 실어 자료집을 만들었다. 자료집에는 문래동을 바라보는 청년예술가의 시선과 청년예술가가 안고 있는 고민이 실려 있다. 또한 문래동 예비이주 작가들의 설레는 심정도 실려 있다.

문래동 원정기 참여작가전: <고독한 밤, 찾아온 당신에게>

기간·장소 | 2019.10.25~11.15, 숭례로 206호

기획 | 여인영

참여 | 강주형, 김주희, 신가혜, 이서, 이도현, 이승훈, 이현오, 정윤영, 조혜은

전시 여는 글

그저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이 있다.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기,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10월 25일 우리는 문래동 원정기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른 채 자신의 자리에서
외로운 작업을 하던 우리가 이 낯은 방에 얽혀서
서로 다른 모양과 목소리로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한다.
그리고 고마움을 전한다.
고독한 밤, 서로를 찾아준 당신들에게

— 여인영

강주형 → p.87

<사냥터 The hunting>, 애니메이션, 싱글채널비디오, 2013

김주희 → p.88

유튜브 채널에 '탈브라' 영상을 퍼뜨린 후, 이에 반응하는 대중들의 댓글을 수집하고 영상에 삽입하여 작품을 구성했다.

생명력 <탈브라 프로젝트>, 캔버스에 유화로 채색, 2017

신가혜 → p.89

어디선가 불이 났고, 개가 짖었으며, 집은 불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가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생성과 소멸의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심리를 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119.8×80.3cm, 캔버스에 유화로 채색, 2019

이서 → p.90

목욕하면서 흘려보내는 부정不淨의 감정. 여성의 몸 위를 가로지르는 거친 붓 터치를 따라 관객들은 대상에 동요된다.

<샤워 Bath>, 116.8×72.7cm, 캔버스에 유화로 채색, 2019

이도현 → p.91

먹기 싫은 한약을 억지로 삼키며 인정해야 했던 나에 대한
엄마의 소유권...

<갈색 액체>, 비닐, 여러 재료로 만든 설치물, 2017~현재

엄마의 손길 같은 누군가의 정성으로 완성된 빨간 머리...
두피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나 빨강계 염색된 부분이
줄어들면 들수록 또다시 누군가의 손길에 신세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린다.

<연례행사>, 33.4×24.2cm, 종이에 혼합재료, 2019

이승훈 → p.92

<아침, 공주 Morning, Kongju>, 애니메이션, 싱글채널비디오,
2018

이현오 → p.93

군필자가 되었지만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자라 하나 구하지
못하는 나, 혼자 동떨어져 버린 나.

<My Landscape #3>, 90×60cm, 잉크젯프린트, 2018

<My Landscapate #1>, 90×60cm, 잉크젯프린트, 2017

정윤영 → p.94

기억의 층위, 원초적인 생명력, 욕동

<Phalaenopsis hilo pink>, 비단과 장지를 배접한

캔버스에 먹, 분채, 붕채, 석채, 수채, 아크릴로 채색,
72.7×60.6cm, 2019

조혜은 → p.95

작가는 걷기 위해 10년 동안 사투했다. 오랜 병원 생활,
한 번씩 찾아오는 재수술... 가족 외에는 기댈 곳 없는 작가가
누구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 +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상상해 보았다.

<moving block>, 리넨 위에 과슈로 채색, 117×91cm 2017











세상의 모든 방을 넘나드는
소리의 귀신

오도함



프로젝트명	세상의 모든 방을 넘나드는 소리의 귀신
대표	오도함
연락처	rong0403@daum.net
사업 기간	2019.11
사업 장소	술술랩 지하, 201호, 202호, 203호
사업 목적	술술랩이 리모델링 되기 전 건축물의 사용이 잠시 일시정지 된 상황을 활용하여 방과 방 사이를 나누는 벽에 조각적인 행위(퍼포먼스)를 가하고, 각종 예술 행위들을 그 위에 중첩시키고자 한다.
사업 내용	— 해체적 건축 실험을 통한 무대 미술 연구 — 방과 방 사이의 구멍을 뚫는 실험적인 퍼포먼스와 기념 공연 진행
취재	정혜진

인터뷰 영상



2019년의 무더운 여름날, 오도함 씨는 곧 리모델링을 앞둔 '술술랩(문래 2가 20-2)'에 방문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건물에는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다. 지하는 7개의 방이 있던 노래방, 1층은 상가와 공장, 식당, 2층부터 5층까지는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살다 간 고시원 원룸이었다.

눈앞에 놓인 많은 방들을 보면서 한때 이곳에 존재했을 이들을 떠올렸다. '누군가 머물다 간 자리.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분 동안 머물렀을 사람들. 그리고 다시 떠나간 사람들. 남겨진 방과 벽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떠오르는 상념을 이어가다 보니 '곧, 이 흔적들은 다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에 흠칫 조바심을 느꼈다.

» “일시적으로 멈춘 것 같은 상황이 흔치 않은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방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흔적을 품고 있는 '벽' 혹은 여기에 존재하는 수많은 방에 '개입'해보면 어떨까. 이 공간이 주는 느낌이 대체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

그로부터 며칠 뒤,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시집을 뒤적거리던 그는 최승자 시인의 「수면제」라는 시에서 '방'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수면제

대낮에 서른세 알 수면제를 먹는다.

(중략)

보이지 않는 적막이 문을 열고
세상의 모든 방을 넘나드는 소리의 귀신
(나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소리쳐 들리지 않는 밖에서

후렴처럼 머무는 빗줄기.

(중략)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바다에 눕는다.

—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방과 방을 직접 넘나드는 상상을 했다. 방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거칠게 부수고 통과하며 걷는 모습을 상상하고, 5층부터 지하까지 벽이 뚫린 구멍으로 바람이 관통하며 내는 소리를 떠올리고, 지하에서 쏘아 올린 노래방의 핑음이 천장을 관통하며 건물에 주르르 흘러내리는 모습도 상상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 같은 공간에서 사람이 아닌 '소리'가 머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 “방 안에서 '음악을 틀어도 돼?'라는 질문을 해야 하면 벽을 부술 수야 없겠지만 '벽을 부셔도 돼?'라는 질문이 허락된다면, 그곳에서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의 아티스트들에게 72시간 동안 클럽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지하의 노래방 공간과 1, 2, 3호 방(원룸)에서 벽을 부수는 것까지 할 수 있어.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하고 싶은 걸 해. 네가 뭘 하든 난 신경 쓰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어요. 아티스트로써 공간에 대해 기꺼이 '반응'해보라고 했죠.” «

그는 '해체적 건축 실험'을 구현하기 위한 무대미술연구와 예외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밴드공연을 기획했다. 건축물의 사용이 '일시

정지'된 공간에서 방과 방 사이를 나누는 벽에 개입하고, 그 위에 연주 행위나 퍼포먼스 등 각종 예술 활동을 중첩하는 구상이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술술 시범운영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가에게 벽의 소재나 동선, 벽을 부수는 방식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지하의 노래방에서 펼쳐지는 밴드 공연을 통해 지역 기반 아티스트와 새로운 접점을 찾기도 했다. 10월의 가을날, 그의 독특한 제안에 동참한 작가들은 일정 시간 동안 방에 '체류(滯留)'하면서 음악감상이나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쳤다.

» “한때는 누군가의 삶의 터전, 유희공간이었던 장소의 벽을 부수고 그곳을 함께 통과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행위였고 일시적인 순간, 그 자체였습니다. 협업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소멸을 기념하며,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순간을 나눠 갖고자 했어요.” «

곧 허물어질 장소는 '술술랩'으로 탈바꿈할 것이고 이는 개인이 아닌 공공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 예술가는 장소에 기민할 수밖에 없기에 그는 더 많은 예술가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 기획이 지역의 예술가들을 동참시키는 하나의 방식으로, 공간 체류(滯留)에 관한 예술가적 예시로 남았기를 바란다.







프로젝트명	문래의 언어
대표	신동혁
연락처	symposionn@gmail.com www.geulja.com
사업 기간	2019.10~2019.11
사업 장소	문래동 일대, 숭실랩 501, 502호, 복도
사업 목적	문래동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이를 가지고 예술인들과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문래동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 및 수집 - 채집한 '문래의 언어'를 재료로 예술가들의 체험 전시
취재	정혜진

인터뷰 영상



글월 문(文), 올 래(來).
그대로 풀어 말하면, '글자가 온다'

신동혁 기획자는 '문래'에 새로운 뜻을 부여해 예술단체 '글자가 온다'를 만들었다. '글자가 온다'는 문래동 지역을 기반으로 예술 창작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말이나 언어, 텍스트, 이야기 등을 발굴, 아카이빙을 통한 실천적 연구와 실험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문래의 언어> 수집은 기획자 신동혁 씨의 사적인 경험에서 출발했다.

» “문래동 지역의 연구자나 외부인의 이야기가 아닌 문래동에 오래 살았던 분의 이야기를 실제로 듣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소(話素)를 갖고 계신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고 '문래의 언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래동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사람·건물·사건 등-에 주목했고, 자칭 '성실한 소재 발굴러'로서 문래동의 지역 예술가에게 글자와 언어를 '떠오는' 역할을 자처했다. 2019년에는 2015년부터 축적해 온 기록과 다양한 예술 작업을 바탕으로 '문래의 언어(떠오는 사람들)' 전시를 기획했다.

부제인 '떠오는 사람들'은 문래동을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뜻한다.

» “최근 문래동 2가를 보면... 급변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죠. 분명, 자기 의지대로

들어오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래동' 하면 등등 떠다니는 이미지가 연상됐어요. '떠오는'이라는 표현은 '부표'가 등등 떠다니는 이미지에서 착안한 말입니다.”

그는 숭실랩 건물(문래동 2가 20-2)을 기억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채집하면서 문래동 2가를 상징하는 공간, 한 지역이 가진 작은 서사에 집중했다. 작가들은 기획자가 공유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들의 감각을 작품과 연결했으며, 이는 문래동 2가에 살던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되었다. 작가들은 '숭실랩'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는 공간과 문래동 2가 일대를 소재로 게임, 아카이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구상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획자 신동혁 씨가 느낀 건 '문래동 2가'의 이야기는 지역민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건 일부이므로, 못다 한 이야기는 또 다른 예술 작업으로 이어가기로 한다. 앞으로도 그는 '우리'가 바라보는 문래동의 역사와 사람, 문화에 대한 일상의 언어들을 계속 모을 것이다.

전시 <문래의 언어>

기간·장소 | 2019.11.8~16, 숭실랩 501호, 502호, 복도
기획 | 신동혁
참여 | 손지훈, 박천욱, 안혁

신동혁
아카이빙한 지역의 이야기는 전시의 중심이 되었고, 작품들은 모아놓은 언어의 '사이'를 매울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전시공간에서는 예술가들의 작업물 사이로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 간극을 채우는 건 관객의 몫이다. 기획자는 관객들이 그 '사이'에서 문래동에 관한 새로운 상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손지훈 (501호) → p.108-109
기획자가 수집한 문래동의 이야기는 작가에게 가상의 게임 공간을 상상하게 했다. 형광색 페인트로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공간을 표현했다. 네온으로 만들어진 마법 진, 보스, 하트 등의 형상은 문래의 언어를 통해 형성된 게임 공간으로 관객(게임 사용자·Game User)을 초대하는 작업이다.

<Trace On! 트레이스 온!(투영개시·投影開始)>, 4.65x2.72m, 유성페인트와 네온플렉스 가변설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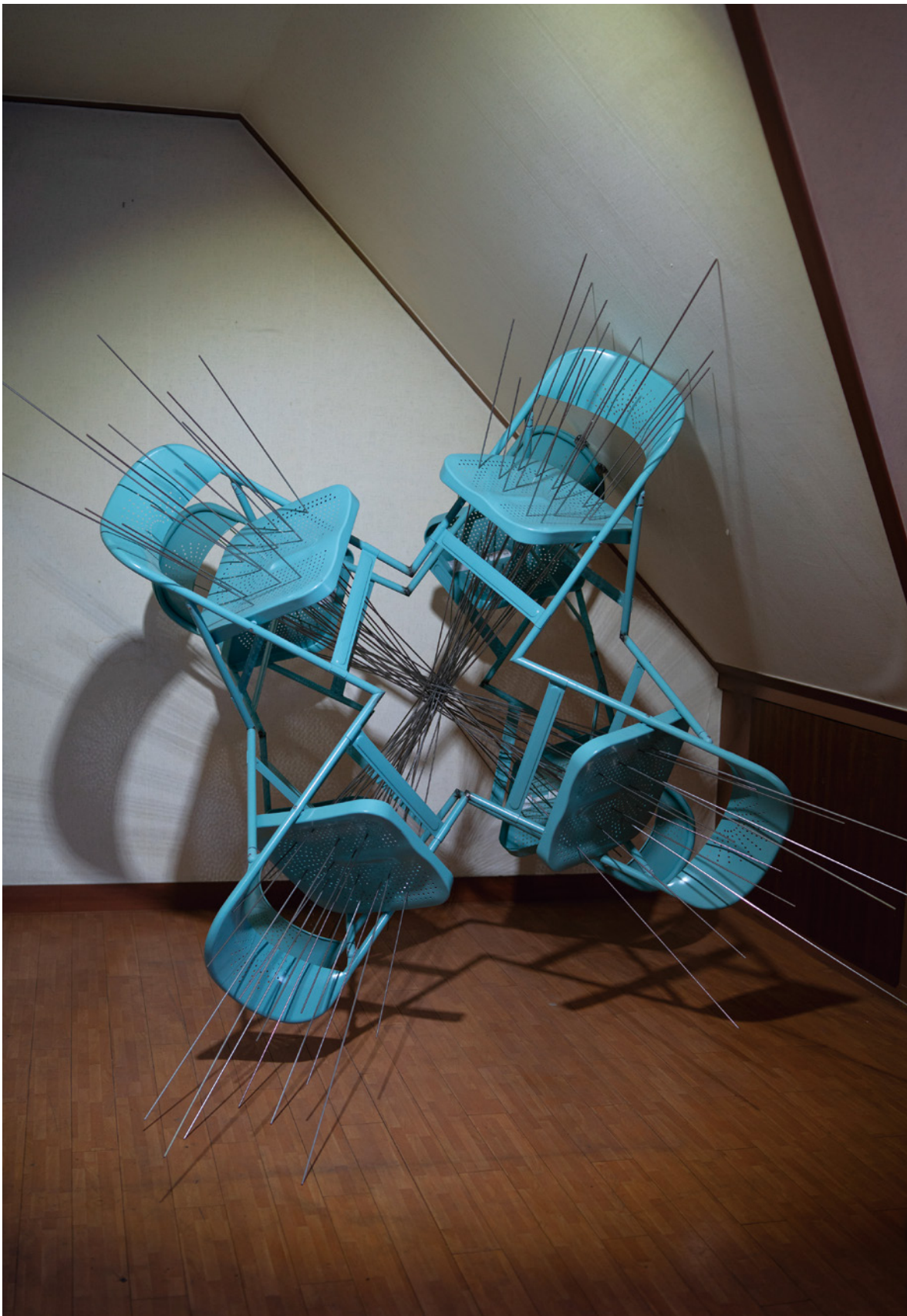
박천욱 (502호) → p.110-111
'문래의 언어'를 조형적으로 보여주는 미술작품을 구상했다. 언어들은 의자를 관통하는 철사로, 다양한 사람들은 잘린 조각으로 표현되었다. 문래동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역색을 담았다.

<주체롭게 자라다 5 Grow Autonomously 5>, 250x250x250cm, 스테인리스 스틸, 의자, 2019
<Grow Autonomously Rainbow Direction 10-1>, ceramic plates, stainless steel, 2018

안혁 (복도) → p.112-113
기획과 공간을 이어주는 아카이브 작업 <떠오는 사람들>을 통해 전시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아카이브 작업을 선보였다.

<떠오는 사람들>, 디지털프린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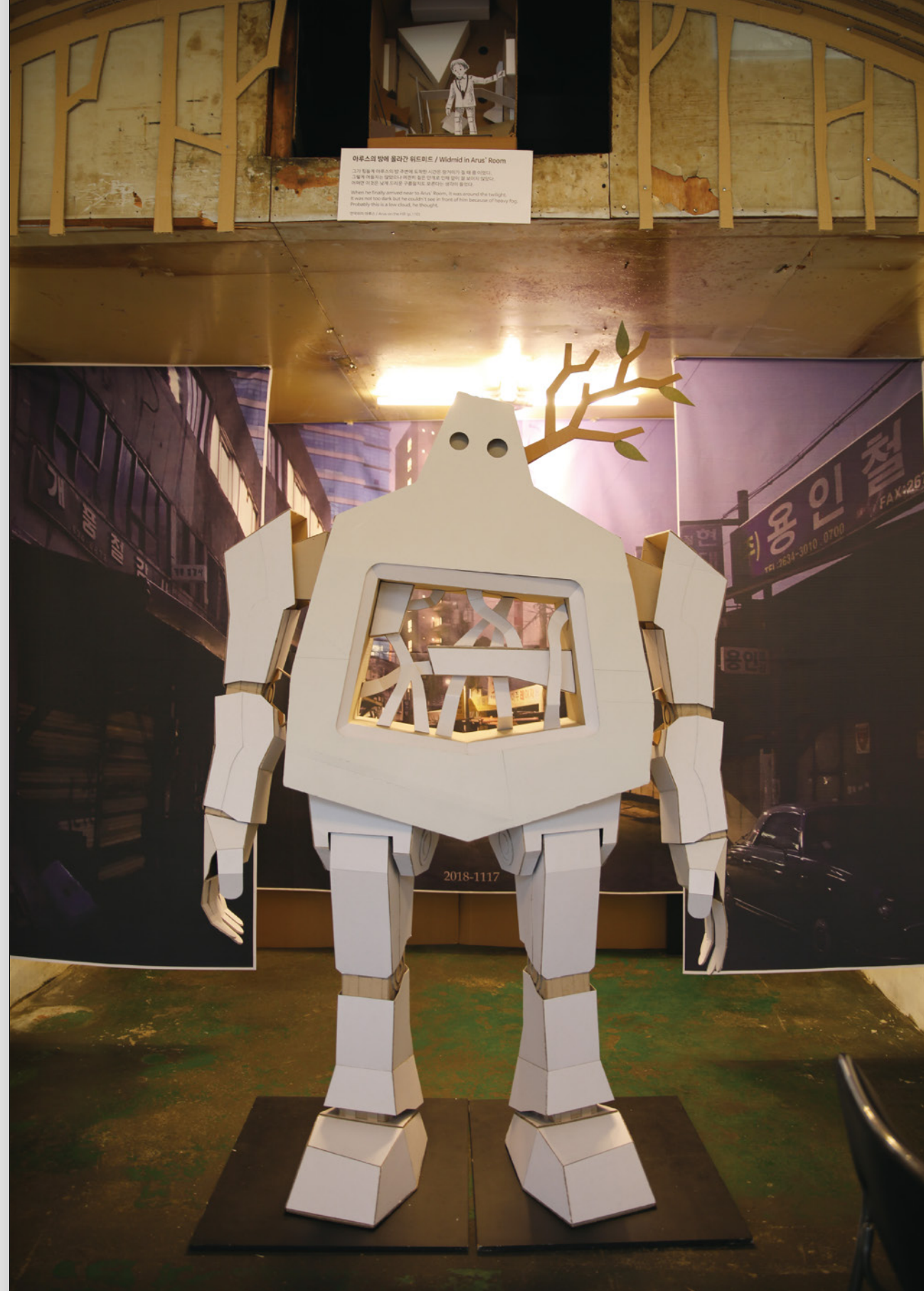






'언덕 위의 아루스' 탄생과 성장

장형순



프로젝트명	'언덕 위의 아루스' 탄생과 성장
대표	장형순
연락처	digitalzicon@naver.com instagram.com/livelearnrunproject
사업 기간	2019.10~2019.11
사업 장소	술술랩 1층, 204호
사업 목적	문래동 철공소가 모티브가 된 소설 '언덕 위의 아루스'의 탄생과정에 대한 전시와 '아루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언덕 위의 아루스' 시작과 탄생 과정 전시 - '아루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취재 정혜진

인터뷰 영상



재개발에 밀려 사람들이 떠나는 마을. 어린이들이 점차 사라지고 마을에 단 한 명의 아이만 남는다면 그 아이는 누구와 놀아야 할까. 소설 '언덕 위의 아루스'는 1세대 종이 모형 디자이너인 장형순 작가가 문래동 철공소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쓴 소설이다.

» “2010년에 문래동 주민과 지역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문래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점점 외지로 나가고 있는데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봐요 그 프로그램에 참가할 어린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문래 마을에 있던 어린이들이 모두 떠나고 마지막에 남은 한 명의 어린이는 누구와 놀아야 하는 거지?'라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언덕 위의 아루스'의 시작이었죠.” ◀

그는 문래동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철공소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커다란 철 무지개가 있고 마을 주민 모두가 할당된 부분을 나눠 만든다면. 그리고 완성된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래, 나도 꿈을 가질 자격이 있어'라고 말한다면...

또 뱃속에 한 아이만을 위한 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로봇을 상상했다. 어린이가 오면 배를 내어주고 속에서 마음껏 놀게 해서 로봇의 배에서는 언제나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어린이의 웃음을 간직한 이 로봇이 무지개 마을의 영광을 되찾아주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면...

이야기는 다시 쓰이고 고쳐지면서, 2017년에야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언덕 위의 아루스'로 탄생했다.

» “제게는 문래동 자체가 '모티브(motive)'였죠. 문래동 골목의 철공소는 대체로 차양막(遮陽幕)을 갖고 있습니다. 거리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차양막 바로 아래에는 기증기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무거운 철을 다루는 철공소에선 반드시 필요한 도구겠지요. 골목의 하늘을 반쯤 가리고 있는 입구의 차양막들, 모든 철공소가 그러하기에 그것이 용인된 골목. 그리고 흐른 시간들. 그것이 이제는 문래동 골목의 정체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 커다란 로봇이 돌아다니는다면, 문래동 골목의 차양막은 그 로봇을 신비롭게 보이게 할 거예요. 그동안 문래동에 올 때마다 차양막 밑으로 휩 지나가는 아루스의 다리와 어둠이 내려앉은 눈을 머금고 차양막 위로 서성이는 아루스의 얼굴을 상상했어요.” ◀

2019년, 소설의 이야기는 <'언덕 위의 아루스' 탄생과 성장> 전시로 재탄생했다. 술술랩 2층 전체를 활용해 '언덕 위의 아루스' 탄생 배경 아카이브와 디자인, 원화 등을 전시했고, 1층에서는 '아루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전시 공간의 접근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모티브'였다.

» “모티브라는 건, '우연히' 거기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하필,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물음이지요. 전시를 준비하면서 벽에 페인트칠을 할 수도 있었지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벽에 존재하는 얼룩마저도 창작의 한 부분으로 그대로 활용되었으면 해서요.” ◀

그가 처음 문래동에 왔던 2010년으로부터 10년 남짓 한 시간이 흘렀다.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최근 문래동의 변화를 바라본 그는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재개발'이라는 접근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 “문래에 남은 어린이들에게라도 인성 중심의 예술교육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문래동에 존재하는 모티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술가의 시선으로 포착해서 글이든, 설치미술이든, 전시든, 어떤 형태의 예술이 됐건 지역성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지역 기반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예술과 예술교육이 문래동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BLANK LAB

김도영



NOMAL
UNLIM

프로젝트명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BLANK LAB
대표	김도영
연락처	Do.arts@gmail.com
사업 기간	2019.9~2019.11
사업 장소	술술랩 1층, 303호, 304호, 기타 공간
사업 목적	창작자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공간을 열어주는 창작거점실험을 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madic Residency <Unlimited Space 문래> 오픈 스튜디오 - <좁으로 당긴 마을 풍경에 도달할 때까지> 전시 프로젝트 - <WP-DNA> 스터디 모임 현장 실습 - <몽고반점> 언플러그드 공연
취재	정윤희

인터뷰 영상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BLANK LAB>은 창작자에게 술술랩 공간을 아무런 조건과 제약 없이 열어준 프로젝트였다. 창작자에게는 자유롭게 작업 할 공간, 자신의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공간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BLANK LAB> 기획자인 김도영 씨는 창작자들이 술술랩 안에서 각자의 의지를 최대한 펼치도록 했다. 작업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관여하지 않았으며, 혹 작업의 결과가 굳이 특정한 형태를 띠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수용해주었다. 또한 임시거주나 작업 공간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들도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미션이나 작업의 형태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술술랩 시범운영 프로젝트’가 공간의 미래를 고민하는 프로젝트이므로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곳이 지닌 성격과 잠재력을 해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각자의 분야와 관심사에 따라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참여자들 중에서는 시각 작업으로 공간을 채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스터디 모임을 꾸리는 이들도 있었고, 밴드연주를 했던 이들도 있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합류한 이들도 있었다.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BLANK LAB> 기획자인 김도영 씨도 술술랩에서 임시거주 하였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전에도 폐건물을 자주 찾아다녔다.

» “스quat⁴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유휴공간이나 폐건물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죠. 이런 공간들은 부담 없고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

그가 처음 폐건물 찾아들어갔던 것은 2003년 외국 유학 생활 중이었다. 창작자로서 작업 공간이 절실했기에 친구들과 스콧을 단행했다. 이후 그는 2008년에도 서울, 부산, 울산, 청주 등에서 스콧을 시도했었다.

» “폐건물에서 작업할 때에는 최대한 공간 안에 원래 있던 것들을 가지고 작업해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죠. 벽지를 뜯어서 새로운 집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벽지를 뜯어서 공간적인 실험을 해봤습니다.” ◀

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속 시원한 예술 공간을 복잡한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시적인 수명을 지닌 공간 안에서 예술이 삶 그 자체이자 놀이가 되는 풍경을 엿볼 수 있었다.

4 Squat
창작자들이 도시의 빈 건물을 점유하고 각종 행위를 벌이면서,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창작자와 지역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운동

Nomadic Residency <Unlimited Space 문래>
오픈 스튜디오 → p.126-133

기간·장소 | 11.16~17, 술술랩 303호, 304호
참여 | 김윤아, 서효은, 정승혜,
예술인 연합 AAA(김도영, 송성진)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간을 공유하도록 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이곳에 입주하거나 이곳을 작업실로 쓰면서 다양한 실험과 네트워크 활동을 펼쳤다.

<좁으로 당긴 마을 풍경에 도달할 때까지>
전시 프로젝트 → p.134-139

기간·장소 | 11.9~17, 술술랩 1층, 3층, 기타 공간
기획 | 전은숙
참여 | 강수민, 강유리, 김윤집, 김하린, 나혜령, 로지은, 안효정,
장윤수, 이정은, 전은숙, 정지영, 한새미, 홍현조

술술랩 내부 공간을 전시, 장소, 제작 세 가지 측면에서 탐색해보고, 참여자들의 잠재력과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술술랩 내에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예술을 시도하였다. 신진작가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WP-DNA>
스터디 모임 현장 실습 → p.140-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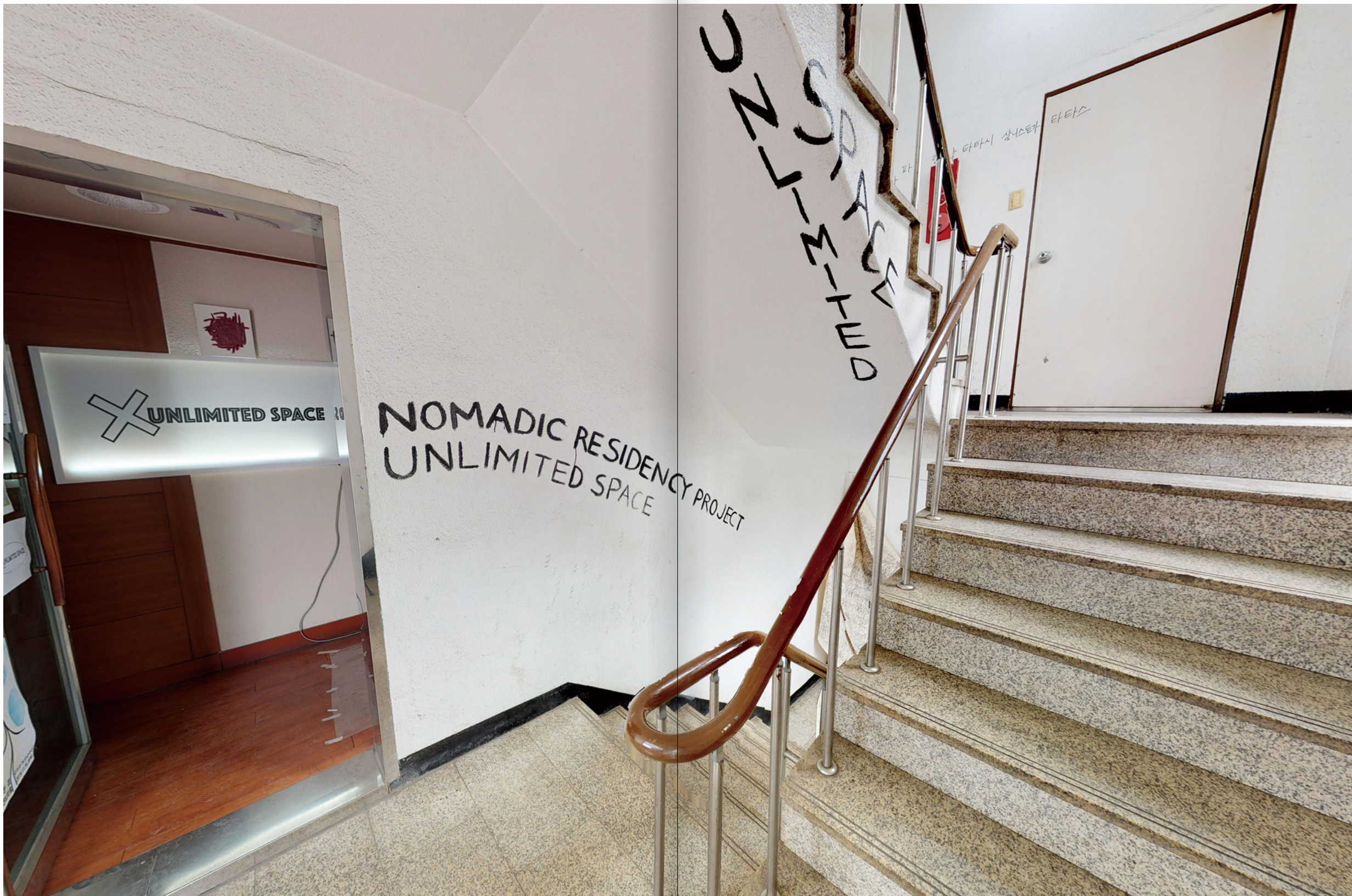
기간·장소 | 11.16 18시, 술술랩 1층, 기타 공간
진행 | 정승
참여 | 김기훈, 김윤하, 김현주, 서영걸, 오헬렌, 이수지, 장미희

WP-DNA(white pyramid-digital noise art)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위해 작가와 기획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 BLANK LAB>에서는 술술랩의 인터랙티브 영상매핑, 사운드영상 연동 실험을 했다.

<몽고반점>
언플러그드 공연 → p.144-145

기간·장소 | 11.16 21시, 술술랩 1층
참여 | 오헬렌, 최솔

외로움과 슬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위로하기 위한 공연이다. 어쿠스틱 기타, 미니 전자 오르간, 다르부카로 구성되었다.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개인전'

양철모



프로젝트명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개인전'
대표	양철모
사업 기간	2019.9~2019.11
사업 장소	술슬랩 1층, 401호, 402호, 403호, 404호, 기타 공간
사업 목적	유희공간에 예술인들이 실험적 아트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공간의 미래가 예술창작자들에게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들의 '몸'으로 리서치하고자 한다. 또한 '유희 공간', '텅빈 곳', '개인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술인들의 '자율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술슬랩 프리오프닝 '예기술술' 참여자들의 작품 활동과 전시 — 비평 <술술+실천+비평> — 오픈토크와 레지던시 프로그램
취재	정윤희

인터뷰 영상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개인전'>은 '텅빈곳'과 '개인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텅빈곳'은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는 그야말로 텅 비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예술 제도도 많고 지원도 많아졌는데, 목적과 상황에 맞는 예술가의 쓰임새가 중요해진 거죠. 창작지원의 효용과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창작자들에게 공공미술, 문화예술 교육과 같은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창작은 그렇게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

'개인전'은 양철모 씨가 개인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비꼬아서 쓴 말이다. 전시장 안을 단 한 명의 예술인의 작업으로 채우는 개인전은 예술인으로서의 성실함과 존재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곤 한다.

»“작가라면 누구나 개인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개인전은 작가들의 욕망이기도 해요. 하지만 개인전이 반드시 작업의 가치를 증명하지는 않죠.” <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에게 특정 임무의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예술인의 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포상금으로서 이를 지급한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활동증빙자료로서 '개인전' 실적을 요구하는 현실은 개인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강화시킨다.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개인전'>은 술슬랩에 '텅빈곳'을 마련하고 작가들을 이곳으로 초대하는 프로젝트였다. 작가들은 아무런 조건과 제약 없이 자신의 작업을 펼칠 수 있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떠한 전시를 구성할지는 오롯이 작가들의 선택에 맡겨졌다.

프로젝트의 참여를 위하여 술슬랩을 방문한 이들 중에서는 자신이 '텅빈곳'에 내던져졌다는 느낌을 받는 이들도 있었다. 처음 만난 낯선 이들과 관계 맺고 협업해야 했으며, 그들과 공간을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도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작업공간과 전시공간, 임시거주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데에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공간을 열어주었더니, 작가들은 처음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진짜 고시원 같다고 했어요.” <

하지만 이내 참여자들은 지금 이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에 집중했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술슬랩 방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른 참여자들과 오랜 시간 대화한 후 공간을 나누었고 이를 함께 채워갔다.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개인전'>은 기획 당시 뚜렷한 형식과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작품 활동과 결과물의 배치, 임시 거주, 비평 활동, 스터디 모임, 공연 등이 술슬랩 안에서 펼쳐졌는데, 모두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작업들이었다.

<자라나는 초록, 거미줄> → p.151-152

술슬랩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

오수

401호 싱크대에는 이끼들이, 방에 딸린 작은 창고 공간에는 거미줄이 증식하고 있다. 작가가 털실을 엮거나 풀어헤쳐서 만든 것들이다. 실제로 고시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던 작가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어둡고 습도 높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증식을 상상해 보았다.

<작업실, 풍경> → p.153-154

술슬랩 401호

양양

양양은 401호를 작가의 작업실로 꾸렸다. 밖으로 난 큰 창은 세상과 소통하고 문래동을 탐색하게 한다. 작가는 이곳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풍경과 자신의 일상을 담아 소품을 제작하고 메모를 남겼다.

<어제 봤던 그 사람은 이제> → p.155

술슬랩 402호

최윤목

402호 방에는 사람 셋이 그려진 작은 캔버스들이 짝 펼쳐져 있다. 총 50점의 그림이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작가는 문정동 작업실에서 그렸던 그림을 가져왔고, 이곳에서도 추가로 더 그렸다. 그림 속 세 사람은 뒤엉켜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체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같은 포즈를 취하는 그림은 단 한 점도 없다. 그날그날 다르게 그려졌다.

<에네르기파> → p.156-157

술슬랩 403호

장자인

하얀 벽지 위에 노동의 여러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다. '에네르기파'는 만화 '드래곤 볼'에서 손오공이 장풍 기술을 사용할 때 내는 주문이다. 작가는 극한 노동의 현장에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림으로 그렸다.

<머뭇> → p.158-159

술술랩 404호

정소형, 하성민

그림을 그리는 정소형과 글을 쓰는 하성민은 남해와 서울을 오가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들이다. 404호 방안에는 이들의 그림과 원고가 펼쳐져 있고, 이들이 쓰는 침구도 놓여 있다. 침구 옆에는 이들의 일상을 담은 관찰카메라 영상이 돌아가고 있다. 영상은 그들이 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다.

<배알로> → p.160-161

술술랩 3,4층 계단, 천장

고걸

'배알로'는 제주도 해녀들이 물속에서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읊는 주문이다. 제주도에서 생활했었고, 불경을 접했었던 작가는 도시인들을 위한 주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주문들을 통로 계단과 천장에 적어놓았다. 술술랩 곳곳에는 주문들이 부적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술술+실천+비평> → p.162-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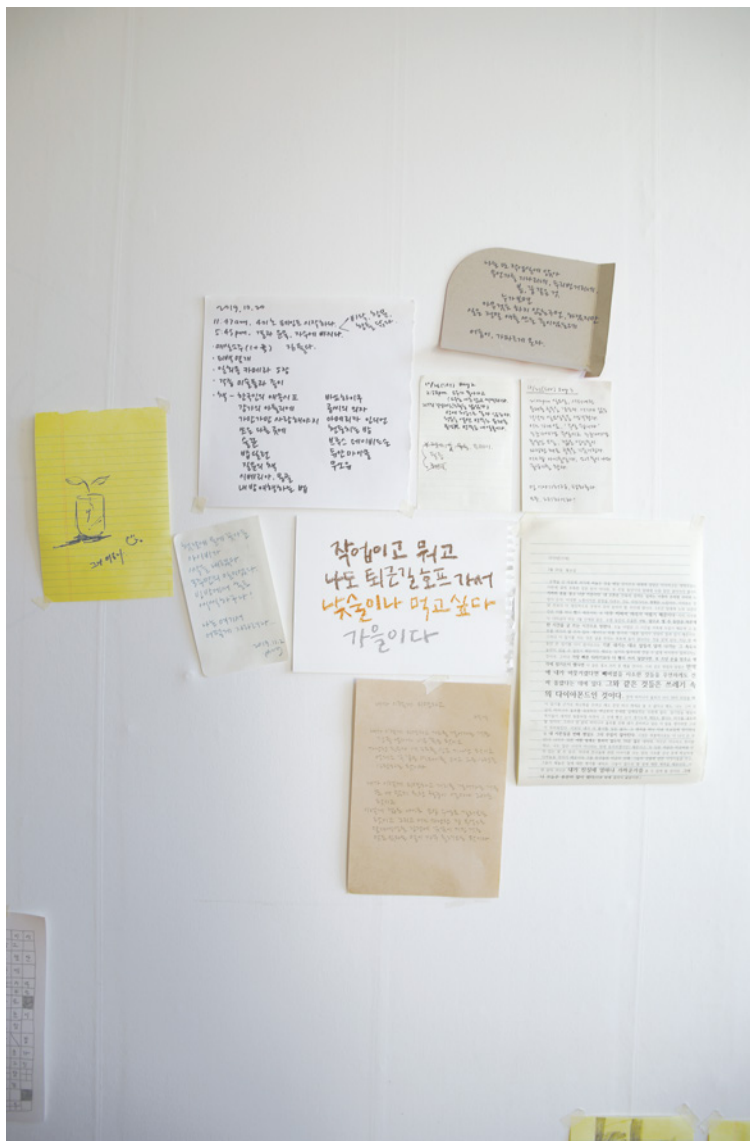
술술랩 1층

오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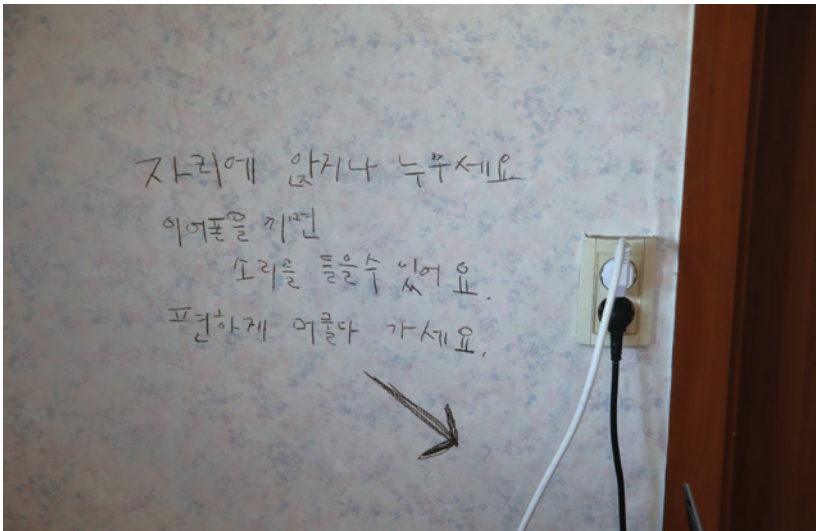
술술랩에서 펼쳐지는 참여자들의 작업을 술술랩이 지닌 장소적 성격에 비추어 관찰하고 이를 글로 담았다. 비평가는 술술랩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실제로 부딪혔던 현상을 텍스트로 담았다.













다른 개인

나는 지금 문래동의 한 건물 앞에 서있다. [문래 술술랩] (이하 [술술랩])으로 이름하게 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의 문 앞이다. 용도를 다한 낡은 건물이 영등포문화재단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달여 동안 예술가의 공유지로 사용된 장소가 [술술랩]이다. 나는 한 기획자의 소개로 한 달 전 이 공간을 처음 만났다. 노래방업소로 운영되던 흔적이 역력한 지하 1층, 남은 간판과 구조로 보아 작은 식당과 주차장이었을 지상 1층, 그리고 고시원이었을 2~5층이 집기류의 온전성과 청결, 수도와 전기를 잃고 예술이라는 국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2층부터 5층까지 기획자 네 명이 한 층씩을 맡아 창작자 몇 명을 공모하거나 섭외해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참여 작가들은 대부분 고시원 방 한 칸씩을 맡아 나름의 일을 꾸려 나갈 것이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 17일까지의 <술술랩 프리오프닝>에서 그 실험의 자취를 공개하게 된다.

작가들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10월의 어느 날 내가 그곳에 처음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방문은 닫혀있었지만, 영역 표시를 하듯 남겨진 작가 작업의 흔적이 무언가 진행 중임을 가늠하게 했다.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한 작가를 만나 그가 스quat(스quat)으로 거주하고 있는 303호를 둘러봤다. 그런 뒤 1층으로 내려가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마루 한쪽에 쳐진 텐트를 봤고, 재단 직원도 여기 숙박하려는 양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

프리오프닝의 첫날, 나는 [술술랩]의 외벽에 거대한 파사드 영상이 상영되고 육일봉의 디제잉

음악이 더해지면서 골목 일대의 침잠과 침묵이 쫓겨나가고 있는 장면을 봤다. 아니, 건물과 그 주변에 서식했던 무심함의 형체가 예술가, 행정가, 관객이 되어 뺑쇼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수다를 더하는 상황을 보았다. 전시에서 낯설지 않은 '오프닝 행사'의 기시감이, 서울 구도심에 새삼스러운 '도시재생'의 프로세스가, 묘하게 별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도 있었다. 그것은 사업과 예술의 추동 속에 배분된 구획과 역할 안에서 규정되지 않은 개인의 머리를 들이밀고 불쑥 나타날 때였다. 나는 그 개인의 형체를 따라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남카삼카 바라스사 남티코

다분삼맥사 남타나 모나

어릴 때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다가 그 위에 새로운 음악을 녹음하고는 했다.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녹음 버튼을 눌러 현 테이프에 새 음악을 덧입히는 경우가 흔했는데, 새로 녹음한 음악 사이사이 공백이 들어가 전에 있던 음악이 몇 초간 재생되는 일이 비밀비재했다. 그 몇 초의 음악은 음악이라기보다 소리나 잡음에 가까웠고, 어떤 고향이나 비명 같을 때도 있었다. 과거 상업과 생활의 흔적이 여전히 공간을 지배하는 [술술랩]에서 작가의 작업 사이사이에 그 몇 초가 있었다. 다만 유년시절 나의 몇 초가 실수였다면, 여기에서의 몇 초는 상당량 의도된 계산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것이 비명처럼 들렸고 집단을 기어이 여기고 벗어나는 개인의 희롱처럼 느껴졌다. 나무 바닥과 곰팡이 슨 벽지를 무작위로 뜯어내 비정형의 더미로 쌓아둠으로써 장소 특정형으로 설치한 306호의 작업에서도, 바닥과 벽지, 타일을 계층적으로 뜯어내고 콘센트와 에어컨호스가 60여 점의 회화 규격과 서로 들어맞게 설치한 402호의 작업에서도 그것을 느꼈다. 튀어나온 기둥과 경사진 지붕이 드러나는

벽면과 천장을 캔버스 삼은 403호의 드로잉과 501호의 조명작업 역시 그랬고, 심지어 오프닝 날 문을 닫고 '전시 오픈 준비중입니다_404호:'라고 써놓은 A4용지를 방문에 붙여놓은 404호도 그랬다.

나는 거기서 과거의 시간을 증첩해 현재에 배합하고, 튀어나온 오래된 못을 지금 작업에 찢러 넣어 파생되는 음절을 자기 안에 기록하는 개인을 보았다. 꽤나 흥미로운 실험이면서도 고태여 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예술은 기존에 듣던 멜로디로 구사되지 않는 것이었고, 주술적인 응원이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3층과 4층을 잇는 계단에 쓰인 '바페트 사이보 다분 바르다 망나', '남카삼카 바라스사 남티코 다분삼맥사 남타나 모나'같은 글귀가 같은 의도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몇 달 뒤, 예술인·기술인·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 협력 공간으로 리모델링되어 오픈될 [술술랩]의 시한부 삶에 찾아든 개인이 시공의 한계를 초월해서 그를 위로하고 동참하는 것 같았다.

빈곳의 우화

나는 지금 [술술랩]의 401호에 들어와 있다. 조금 전에는 지하 1층에 내려갔다 왔는데, 혀를 뺀 것 듯 노래방 기계 없이 인기가요 포스터만 남기고 텅 비어있는 거기는 육일봉 사람들의 출판이 벌어진 1층의 엠프와 가까워서 전해지는 소란으로 마른 목을 채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곳은 비어 있었다. 여기, 401호가 그렇듯이. 401호에는 작업이 되기를 기다리는 작가의 사물과 노트 따위가 여기저기 널려있다. 작가는 이 방을 작업이 완결되어 정지된 채 전시되는 장소가 아니라 투과되는 곳으로 삼았다. '작업을 발전한다면 좋은 일이고, 작품이 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바로 그 흔하디흔한 작업실 풍경이 될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썼다. 나는 이제 한 층 밑으로 내려가 도시 공간을 촬영한 영상 작업이 상당한 3층 복도와 방을 지나 303호로 간다. "정은아. 나는 오프닝 날 내 방을 열지 않아. 내 방은 전시장이 아니라 스튜디오야."라고 말했던 작가의 방은 오늘,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다. 그러나 나는 학창시절 터득했던 기술을 활용해 자물쇠를 따고 들어간다. 스콧의 스콧을 하면 무엇이 되나? 그런 명목보다도 사실은, 예술가, 행정가, 관객의 사교가 활발한 오프닝 행사의 분위기를 피해 개인으로 숨을 돌릴 곳이 필요해서였다. 이곳에서 나름 오랜 시간 숙식한 작가의 행위 덕분에 303호는 꽤 안락하다. 아마 얼마 전까지 303호는 누군가의 진짜 집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친다. 나는 조금 전 401호 싱크대와 작은방에서 보았던 이끼와 거미줄 같은 형태를 회상한다. 물론 그것은 고시원 생활 경험이 있던 작가의 연출된 작업이었다.

좁은 복도를 공유 공간 삼아, 가지처럼 양쪽으로 나있는 몇 개의 방에 한 명씩 월세를 내고 생활하던 장소성은 물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이곳을 점유해 숙박하거나 작업하거나 설치하기로 한 작가들의 개별 실천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같은 주체 측의 목적에는 '아직'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아직'의 단서를 붙인 것은 그러나, 말 그대로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방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물에 창작자 개인이 투입해 들어가 자기 흔적의 기표를 대중에 증명해내야 하는 의무감도 내버리고 방문마저 닫아버리고서 오롯이 개인으로서 공간을 점유해보는 시도는 '증명'이 일반화된 요즘 창작 세태를 교묘하게 때리는 것 같다. 그래서 네 명 기획자의 미감과 방식의 차이가 건물의 층위를 나누기보다 곱하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작가의 의도가 자연스러우며, 오프닝 날 문을 닫고 있던 곳도 행사의 오류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나는 도시재생과

주민친화의 예술론이 오랫동안 문래동을 비롯한 일부 대상지에 우화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했고, 이번의 임시 프로젝트 뒤로 정식 개관될 [술술랩]이 개인에게 지분을 침탈 받음으로써 세계 닥친 담론의 위기와 비판을 넘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서 개인은 거대 서사로서의 편입을 부정하고 상대적으로 목적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위치에 다다른다.

건물의 미래를 이쯤하고 여기서 빠져나가려던 나는 영상의 이미지를 보다가 문득, 찾고 있던 개인의 고향과 비명의 출처가 이끼와 거미 같은 데에서도 있음을 깨닫는다. 순간, 그들은 이곳이 텅 빈 곳이 아니라는 증언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규정되지 않았던 개인이 머리를 들이밀고 불쑥 나타나 자신을 토해내고있었다.

술술랩 프리오프닝 '예술기술'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리빙랩 오픈주간


술술랩 프리오프닝 '예술기술' 오픈주간

술술랩 프리오프닝 '예술기술'은
《문화생산도시리빙랩》 '리빙랩 제안
프로젝트'와 '술술 시범운영 프로젝트'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었던 행사였다.
작품 전시를 비롯해 오픈스튜디오, 체험,
워크숍,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술술랩 프리오프닝

예 기 술

2019. 11. 8 (금) - 17 (일) PM 12 - 8



@근래 술술랩 영등포구 근래2가 20-2

스캇전시 / 퍼포먼스 / LAB 프로그램

오픈 행사
술술파티

11. 8 (금) PM 5: 30 - 9: 00
1부 오픈식 - PM 5: 30 시작
2부 미디어 파사드쇼, DJ파티 - PM 6: 30 시작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확인 / 문의 02-2629-2233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영등포구 주관  영등포문화재단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영등포 #문래동 #반박 #일박 #예술기술합력 #문화생산도시리빙랩 #2019문화적도시재생사업 #술술콜라지 #술술콜러지

예술주간 주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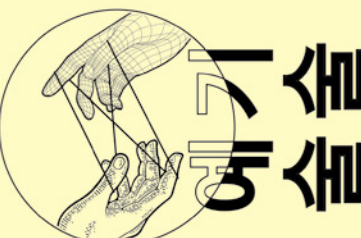
오전행사 오븐식 + 술술퍼티 (Dinner, 미디어아트 - 워킹숍)	11.8(화) 11.9(목) 11.15(화) 11.16(목) 11.17(화)	11.8(화) - 11.17(화)
프로그램	17시 30분 <1층> 19시 <1층>	<5층 501, 502호 > <4층 401호 심크네어 직인방 >
프로그램	14시 <1층>	<4층 403호, 404호, 405호 > <4층 402호, 403호, 404호 >
프로그램	15시 18시 - 18시 15분 <4층 404호>	<4층 403호, 404호, 405호 > <4층 402호, 403호, 404호 >
프로그램	16시 <1층>	<4층 403호, 404호, 405호 > <4층 402호, 403호, 404호 >
프로그램	14시 <1층>	<4층 403호, 404호, 405호 > <4층 402호, 403호, 404호 >
프로그램	18시 <1층>	<4층 403호, 404호, 405호 > <4층 402호, 403호, 404호 >
프로그램	14시 <1층>	<4층 403호, 404호, 405호 > <4층 402호, 403호, 404호 >
프로그램	16시 17분 - 17분 <4층 403호>	<4층 403호, 404호, 405호 > <4층 402호, 403호, 404호 >
프로그램	18시 17분 <1층, 3층>	<4층 403호, 404호, 405호 > <4층 402호, 403호, 404호 >
프로그램	21시 <1층>	<4층 403호, 404호, 405호 > <4층 402호, 403호, 404호 >
프로그램	18시 17분 <1층, 3층, 4층 403호, 404호, 405호 >	<4층 403호, 404호, 405호 > <4층 402호, 403호, 404호 >

▲ 내용은 누끼 판이 필요로 운영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변경될 예정입니다.

미술 플랫폼 프리오피닝

예술기술 리플렛 - 주요행사

1919. 11. 8 (금) - 17 (일) PM 12 - 8



문의 02-2629-2233

주최 문화재단연합회 · 영등포구 주선 영등포문화재단 · 한국문화재단연합회

미술 플랫폼 프리오피닝

2019 영등포 문화재단 도시재생사업
문화생산지리비밀방
술술랩 프리오피닝

2019 영등포 문화재단 도시재생사업
문화생산지리비밀방
술술랩 프리오피닝

2019 영등포 문화재단 도시재생사업
문화생산지리비밀방
술술랩 프리오피닝

이벤트 프로그램 20-2

11.8(화) - 11.17(화)

문래의 언어 (피오는 사람들) - 글자온디 (신동학)
자라나는 초록, 가미줄 - 오수
작업실, 풍경 - 영양
아래 빛던 그 사람은 이제 (가제) - 최은복
에네르피 - 장지민
미음 - 정소희, 하선민
배달로 - 고걸
'몸으로 담긴 마음 풍경에 도달할 때 까지' 전시 프로젝트 - 그룹전시
문래를 원장기 참여작가전, 고복남, 빛아온 응신에게 - 그룹전시
'언더 위아 어루스'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정형순
문래를 이용하지 연구소 (이용장자모델 제작 및 기록 영상 전시) - 신배걸

Q. 문화생산지리비밀방?

문화생산지리비밀방은 일과 놀이, 학습을 융합하여 도시와 마을이 지닌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예술인 · 기술인 ·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형 리빙랩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문래 술술랩?

예술인 · 기술인 ·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협력공간을 꿈꾸며 2020년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리빙랩?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비평적으로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여 생활하는 '열린' 속 '실용성'을 뜻합니다.

168

술술랩 프리오피닝 '예술기술'

술술랩 프리오피닝 '예술기술' 리플렛 - 전시 소개

미술 플랫폼 프리오피닝 '예술기술' 리플렛 - 전시 소개

2019 영등포 문화재단 도시재생사업
문화생산지리비밀방
술술랩 프리오피닝

2019 영등포 문화재단 도시재생사업
문화생산지리비밀방
술술랩 프리오피닝

이벤트 프로그램 20-2

11.8(화) - 11.17(화)

문래의 언어 (피오는 사람들) - 글자온디 (신동학)
자라나는 초록, 가미줄 - 오수
작업실, 풍경 - 영양
아래 빛던 그 사람은 이제 (가제) - 최은복
에네르피 - 장지민
미음 - 정소희, 하선민
배달로 - 고걸
'몸으로 담긴 마음 풍경에 도달할 때 까지' 전시 프로젝트 - 그룹전시
문래를 원장기 참여작가전, 고복남, 빛아온 응신에게 - 그룹전시
'언더 위아 어루스'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정형순
문래를 이용하지 연구소 (이용장자모델 제작 및 기록 영상 전시) - 신배걸

Q. 문화생산지리비밀방?

문화생산지리비밀방은 일과 놀이, 학습을 융합하여 도시와 마을이 지닌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예술인 · 기술인 ·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형 리빙랩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문래 술술랩?

예술인 · 기술인 ·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협력공간을 꿈꾸며 2020년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리빙랩?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비평적으로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여 생활하는 '열린' 속 '실용성'을 뜻합니다.

술술랩 프리오프닝 '예술기술'

공간 기록

술술랩 프리오프닝 '예술기술' 오픈주간을 진행하기 전 후로 공간을 기록했다.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삶의 흔적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술술랩 프리오프닝의 순간마저도 '술술랩'의 과거 흔적으로 남겨질 것이다. 이 자료들은 2020년 새로운 지역 문화 공간으로 탄생할 술술랩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B1, 1~5층



1층 식당



1층 창고



술술랩 B1, 1~5층









타타스 삼스타 타타시 캄트파 캄지라파아 캄기동라포 나라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의 4가지 질문문화 에디터의 시선

예술과 기술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

지역에서 예술인이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지역을 어떻게
기록해나가야 할까?

영등포, 문래동에서
가능한 예술은 무엇일까?

편집팀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활동 목표와 과정,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스스로 제기했던 질문들을
수집하여 이를 네 개의 질문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영등포문화재단이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을 이어가면서
다뤄봐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기술인들의 관찰자에서 기술인의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 변신하는 이들

한낮에 요란한 기계음 소리를 내며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들의 틈에서 예술인들은 기술인들의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그들과의 관계를 시작하곤 한다. <문래동 이동장치> 기획자 신해철 씨 역시 기술인의 일상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프로젝트 기획을 시작했다. 건축가이기도 한 신해철 씨는 평소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건축이라는 분야가 본래 기술 반, 예술 반인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래창작촌에서 활동하는 동안 예술적이면서도 기술적인 경험을 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무언가를 조립해서 제작하는 일을 해왔다. 그는 평소 마을의 기술인들과도 친분을 쌓아왔었다.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술인들의 모임에는 술자리만 아니면 꼭 참석을 하는 편이라고 한다.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술인들의 일상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문래동 이동장치'라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행하면 기술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과정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절반은 기술인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꼈다.

<분리배출 기술연구소> 이소주 씨는 문래창작촌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공장들 간에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협업 체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역시 주변의 공장들과 기술인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해왔는데, '철부지'라는 책에는 동네 기술인의 개인사를 비롯해 이들이 지닌 기술과 각 공정의 특성도 실려 있다. 이소주 씨의 경우 처음 문래동을 찾아왔을 당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적기업가로서 공공미술, 예술교육, 마을탐방 기획, 환경 분야에까지 손을 뻗쳐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과정에서 기술인의 시선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예술인은 프로젝트형 인간이라 변신이 가능한 반면 기술인들은 상대적으로 변신이 어렵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따라 변신이 가능한 사람'이란 다른 아닌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를 직접 플라스틱 분쇄기를 만듦으로써 해결해보고자 했다. 이 기술이 우리의 삶 곳곳에 투입된다면 평범한 사람들도 환경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 그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지역의 기술인과 손을 잡고 기계 생산 작업에 뛰어들었다.

조다솔 씨는 디자이너이다.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오픈소스를 발견하고는 플라스틱 재활용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회사를 그만 두고 2년 간 이 작업에 매달려 왔다. 그가 작업실에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장비를 갖추기까지 여러 번의 실패의 경험을 거쳤다. 그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아름다운 패턴을 가진 굿즈를 제작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결국 아무리 좋은 의미를 지닌 제품이어도 아름답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패턴을 내기 위해 장비를 쓰는 법이나 재료를 바꾸어 가며 실험을 해왔다.

노정주 씨는 <나만의 이동형 먹고사는 문제 해결 키트 만들기 워크숍> 프로젝트를 통해 '이동형 커피바' 장치를 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스케치로 기술인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험했다. 예술인들이 스스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파생상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술과 기술이 창의적으로 상생하는 마을을 꿈꾸며

자기혁신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영등포의 기술인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금속 기계 산업이 전환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술인들은 주로 대량 주문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 대량 주문 일감이 현저히 줄었고 다품종 소량 제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물건을 제작할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전까지는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맡은 공정을 주문서대로 처리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 스스로 완제품을 제품을 만들어 내놓아야 하는 사회적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기술인들은 이러한 변화 앞에서 자기 혁신을 이루고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혁신에 예술인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구애가 필요한 상황이며, 영등포문화재단이 지역의 '예술과 기술의 상생'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에서 예술인이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

예술인의 삶과 스폿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동안 간혹 술술랩에서는 예술인들의 너털너털한 삶을 볼 수 있었다. 낡은 건물 곳곳에 침낭과 생활 집기를 가져다 놓고 임시거처를 꾸린 이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과거 고시원이었던 방 안에서 진짜 고시원 생활을 했었던 과거를 떠올리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작업할 공간, 전시할 공간은 예술인이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과도 같다. 그러기에 10여 년 전 예술인들은 이 지역의 낡고 허름한 빈 공장으로 찾아와 모진 노동을 감내하며 공간을 가꾸었을 것이다.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레지던시 프로젝트의 한 참여자는 벽지를 뜯어내 쌓아올리는 작업을 선보였는데, 낡은 공간을 가꾸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벽지를 뜯어내는 일이었다고 했던 문래창작촌 예술인들의 증언이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의 두 프로젝트 <언리미티드 스페이스>와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개인전'>은 예술인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야기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일상의 모습에서 절실한 심정이 이부자리처럼 드러나 있었다.

어두운 밤, 찾아온 당신에게

외로움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이들이 마을에 찾아왔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의 <문래동 원정기: 문래동 예비이주자 문래탐색 대모험>은 새로운 동료로 만나고 새로운 공동체에 정착하고 싶은 예술인들이 문래동을 탐색하는 프로젝트였다. 노정주 씨는 이동형 커피바를 매고 거리로 나갔다. 그 역시 거리 위에서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원했다.

예술인의 조건, 지원사업의 조건

개인전은 예술인으로서의 자질과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실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된다.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개인전'> 기획자 양철모 씨는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전을 향한 예술인의 욕망,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다. 각종 예술인 지원사업은 신청자에게 실적 증빙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만 존재해야한다고 암묵적으로 강요한다. <나만의 이동형 먹고사는 문제 해결 키트 워크숍> 기획자 노정주 씨는 인터뷰에서 예술인을 향하고 있는 불편한 사회적인 시선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먹고 살 수단이 없는 예술인들이 가게를 열거나 생계 활동에 뛰어들면 이를 곱지 않게 본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인 지원사업은 지원의

대가로 예술인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지시하고 하는데, 이는 창작자의 자율성을 해치기도 한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기존의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되었다. 담당자 우민희 씨는 너무 많은 규제와 규칙으로 내용을 좁히는 사업이 아닌, 참여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길 원했다고 말했다.

마을 안에서 관계 맺고, 먹고살고

이미 문래창작촌의 존재가 지역에서 예술인이 살아갈 방법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마을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고, 먹고살기 위해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다시 위협받고 있다. 예술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 더 해볼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문화생산도시리빙랩》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인, 기획자들은 생산의 현장에 뛰어들어 뭔가를 만들었고, 이로써 지속 가능한 삶을 창출하고자 했다.

<문래가치환전소 문(moom)> 기획자 이용희 씨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기에 놓인 마을에서 누구를 이웃으로 삼고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순환구조를 창출해내기 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갈 것이고 적극적인 공공의 꾸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당장 해볼 만한 것이 있다면 불필요한 잣대와 조건을 치유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 지역을 어떻게 기록해나가야 할까?

언어는 유동적이며 제한적이다

신동혁 씨가 기획한 <문래의 언어>내용에는 주변에서 술하게 이루어질 법한 대화들이 담겨 있다. 일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흔한 대화들은 먼지처럼 흩어지다가 사라져 버리곤 한다. <문래의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대화를 단순히 언어로 기록해 두는 것과 예술적 작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을기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한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대담회의 모든 참석자들이 '마을기록'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했으며, 특히 마을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책에 기록해 두어도 먼지처럼 흩어지는 언어의 속성은 그대로 남게 된다. 예술인은 그 흩어지는 먼지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예리한 시선을 가진 이들이다 <문래의 언어> 전시에서 의자들을 사선으로 관통하는 철사와 깨진 도자기들이 모여 있는 작품들을 통하여, 관객들은 술술랩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떠도는 삶, 파편화된 삶의 이미지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Text'라는 단어는 언어, 문자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예술인들에게는 좀 더 복잡한 의미의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현대예술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1968년 「작품에서 텍스트로 From Work to Text」라는 글에서 '텍스트를 읽는 행위란 일회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과 지시물, 메아리들, 광범위한 입체 음향 속을 여기저기 횡단하는 과거 혹은 현대의 문화적 언어들을 읽어내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언어는 흩어지기 쉽거니와, 언어로는 담기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침묵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며, 언어라는 성긴 매체로 표현하기에 화자의 심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의 한계는 모든 비언어적 예술(시각, 퍼포먼스 등)의 창작 동기가 되기도 한다.

맥락의 유추

흩어져있는 사료들 속에서 맥락을 유추하는 작업은 일종의 구조화 작업이다. <문래의 언어>에서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작품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터뷰한 내용 속에서 일정의 맥락을 짚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지역의 구조와 역사에 대한 맥락을 유추하는 작업이었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까지 접근했다. 영등포 내에는 주택가와 공장지대, 철도 등 지역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생태적이고 소통 가능한 완충지대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안에서 여러 계층이 공존하기가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이들의 아이디어가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실제 그곳에서 생활하는 이들과의 대화가 추후 필요해 보인다.

작품의 파급력

시각은 가장 직관적이며 가장 직접적인 감각이다. 지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시각예술 작업에 집중되곤 한다. 사람들이 공장들이 늘어선 이 동네를 아름답다고 인지하기 시작한 것도 시각이라는 감각의 파급력 때문이며, 이는 동네 풍경을 작품으로 다루었던 예술가의 시선에 힘입은 바가 크다. <문래간판스타 Part.2> 기획자 김보배 씨는 문래동에서 공장 새시문과 간판에 적힌 글자들을 보고 한눈에 그것이 예쁘다고 느꼈고 이후 이 글자들을 모으고 가공하는 작업을 한다. 술술랩 프리오프닝에서는 공장 새시문, 간판 폰트들을 가지고 액자와 티셔츠를 선보였다. 그는 이 글자들이 공장 사장님들의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것이라고 한다. 언어적인 설득보다 감각적인 설득이 필요한 일들이 있다.

사라져가는 위기 앞, 기록에 열중하는 이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제안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마을기록에 열중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 <문래의 언어>, <문래간판스타 Part.2>가 참여자 각자의 분야에서 마을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였다. 또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포럼'을 통해 마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록해온 예술인들의 작업을 접할 수 있었다. 최서영 수원 골목잡지 대표는 <문화생산도시리빙랩> 대담회에서 민간의 기록 활동을 보관할 기술적 지원, 공간적 지원을 공공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어, 맥락, 감각을 아우르는 아카이브

<문화생산도시리빙랩> 대담회에서는 문래창작촌에서 해야만 하는 아카이브의 형식에 대하여 고민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는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이 결합되어 생긴 용어, '라키비움(Larchiveum)'을 소개했다. 박지원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총괄기획자는 예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아카이브라는 뜻의 '아트카이브(Artchive)'를 언급했다. 라키비움과 아트카이브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두 개념 모두 언어로만 대상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작업을 뛰어넘어 총체적인 형태의 아카이빙을 가리키고 있다. 언어와 맥락, 감각을 아우르는, 문래창작촌에 적합한 아카이빙의 형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역민과 소통하는 예술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의 〈문래의 언어〉 프로젝트는 술술랩 근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통해 전시 공간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이를 설치작품으로 전환시켰다. 〈문래간판스타 Part.2〉 프로젝트에서는 직접적인 인터뷰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지역 공장의 새시 문, 간판에 쓰인 글자들을 모으고 액자와 굵기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역에서 일하는 기술인을 자랑스러운 존재로 표현하였다. 〈나만의 이동형 먹고사는 문제 해결 키트 워크숍〉 프로젝트에서는 지역 기술인의 협력으로 기획자의 아이디어가 이동형 커피바라는 장비로 탄생하였다. 기획자 노정주 씨는 이 과정에서 기술인과 예술인 간의 소통을 이야기했으며, 이동형 커피바가 생계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예술인이 지역민과 소통하면 삶에 밀착된 작업을 할 수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역민들 다루게 된다.

공간을 탐색하는 예술, 실험적인 예술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은 건축가의 시선으로 지역을 탐색하는 작업이었다. 참여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대와 지대를 가로지르는 경계선의 존재, 기능적인 측면이 극대화된 특이한 공장의 구조, 간판이나 새시 문에 새겨진 특정 폰트의 존재 등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발견해냈다.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이 지역 공간 전체를 조사하는 작업이었다면,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술술 시범운영 프로젝트’들은 술술랩의 공간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실험이었다. 오도함 씨는 〈세상의 모든 방을 넘나드는 소리의 귀신〉을 통해 방과 방 사이의 벽을 허물고 그 위에 음악적인 작업을 덧입히는 파격을 선보였다.

공간의 원상복구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 예술인들은 술술랩 안에서 진정한 놀이와 실험들을 펼칠 수 있었다. 〈언리미티드 스페이스: BLANK LAB〉, 〈아트프로젝트 텅빈곳 ‘개인전’〉, 〈문래동 원정기: 예비이주자의 문래탐색 대모험〉의 참여자들 역시 작품을 창작하고 전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술술랩 공간을 탐색한다. 이들 중 다수가 공간에 있던 흔적, 소품, 집기들을 최대한 그대로 두면서 작품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 전시 프로젝트는 ‘화이트큐브’에서 행해지는 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화이트큐브란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힌 하얀 공간을 의미하며 작품을 관람하기 최적의 조건을 조성한 공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의 창작자들은 작품을 극단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화이트큐브 공간에 갑갑함을 느끼곤 했는데, 우선 이러한 공간은 일정한 형태로 막혀있기에 그 안에서 펼칠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고, 이들 공간이 공유공간이라는 이유로 전시 종료 후 창작자에게 완전한 공간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의 행위에 제한을 준다. 하지만 원상복구 의무가 과연 공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질문해볼 수 있다. 문래창작촌의 문화공간들을 예로 살펴보면 창작자가 공간에 가한 작업들이 공간의 가치 상승, 더 나아가 지역의 가치 상승으로 귀결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대담회에서 박지원 총괄기획자는 술술랩이 앞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재미를 일으키는 개방성을 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술술랩에서 작업을 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공간은 그러한 개방성을 띠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화이트큐브는 관람자가 최대한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면적의 벽 위에 한 가지 작품을 걸어 놓고 주변에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조명을 설치한다. 이는 작품을 배려하는 듯해도 작품의 맥락을 잘라내 버리는 전시방식이며, 따라서 불온한 전시방식일 수 있다. 또한 작품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화이트큐브를 탈출하여 관람자와 진정한 소통을 시도하는 작품

현대 예술인들이 작품을 미술관에서 탈출시켜, 저 광활한 대지 위에 펼쳐놓거나¹,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의 담벼락 위에 펼쳐 놓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문래창작촌 골목에서도 미술관을 빠져나온 작품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혹은 작품은 디지털 매체 속을 떠돌곤 한다. 문래창작촌 예술인들 중에서는 지역의 풍경과 사람들을 사진이나 영상의 방식으로 담는 이들이 많은데, 사진과 영상은 매체 안에 담기는 작품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캔버스를 탈출하여 미디어 매체를 떠도는 작품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사람의 눈을 닮은 카메라 렌즈는 관람자의 시선과 가장 가까운 시선으로 대상을 담을 수 있어 창작자와 관람자 사이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자료 형식의 작품도 매체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맹점이

¹ 초원, 사막 등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작업하는 미술을 대지미술(Land Art)이라고 부른다.

있는데, 수용자의 입장에서 매체의 장벽이 두텁게 느껴질 경우 작품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공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지역을 바라보는 작가의 독특한 시선은 때로는 이러한 매체의 장벽을 뚫는 힘을 발휘하곤 하는데, 문래창작촌에 대해 애정 어린 시선을 지닌 작가들의 작업들을 바라보면 대체로 매체로 인한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래간판스타 Part.2>에서도 디지털화 된 이미지들이 거리낌 없이 관객들에게 재기발랄하게 다가오고 있다.

문화생 산도시 리빙랩 대담회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의미와 방향

진행
정윤희 에디터

참석자

- [강]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 [박] 박지원-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총괄기획자
대안예술공간 이포 대표
- [최] 최서영- (주)더페이퍼 대표
수원골목잡지 사이다 발행인
- [신] 신동혁- 기획자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참여자
- [우] 우민희-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지원사업
담당자

2020. 1. 23 (목) 오후 1시~3시
영등포문화재단 2층 대표이사실

우선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사업을 기획하신
강원재 대표님과 박지원 총괄기획자께서
사업의 배경과 취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했었지만 개발의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주민의 삶과 무관한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의 관점으로 지역사회를 다루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문래창작촌에서는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특히 예술인들은 주변의 공장들과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정체성을 잘 반영해 문화적 생산을 일으키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게 된 그 배경엔 '마을의 변화와 위기의 대응'이라는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문래에서 살아왔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래창작촌에 13년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문래동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작가로서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의 공간과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기록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마을에 살면서 많은 변화를 지켜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기반의 창작활동, 전시기획, 공간운명을 통해 마을의 가치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넘어가는 개발정책, 안과 밖으로 불어닥친 젠트리피케이션의 위기 속에서 문래창작촌의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창작 환경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창작촌의 미래를 고민하였고, 마을을 둘러싼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6년, 마을의 10년을 정리하는 아카이브 「문래공감」을 정리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마을 생태계를 발견하였고 '기술과 예술의 마을'이라는 마을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10년을 살고 떠날 생각이었는데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해야 할 것 같았지요. 그즈음 과거 어느 때보다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의 움직임을 만났고 제가 그동안 마을에서 발견한 가치들, 숙성된 마을의 여건과 공공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만나 이제 뭔가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문화재단으로부터 마련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영등포에 존재하는 소공인 마을, 문래창작촌이
지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지역 안에서 어떠한 의
미를 지니게 될까요?

[신] 앞서 박지원 대표께서 마을의 변화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공공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지속시키려면 공공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 또한 하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찾은 가치가 있다면, 이곳에서는 많은 주체들이 공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기에 따라 다투는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툼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미의 다툼이 아니라 같이 잘 살아보자는 의미가 담긴 일종의 즐거운 다툼입니다. 영등포에서 생활하다 보니 내부 사람들이 느끼는 이곳의 풍경과 외부인이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인은 이곳을 어둡고 거친 공업지역으로 바라보곤 하는데 막상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곳은 그저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마을이었어요. 예술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역은 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예술인들의 작업 방식이나 재료가 바뀌는 것을 자주 보았어요. 지역의 매력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 저희는 「사이다」라는 마을 잡지를 8년간 발행해오고 있고, 현재는 마을 기록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보다는 움직이는 공동체, 우물터를 만들기 위하여 기록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였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지를 만드는 과정에 마을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마을 기록자들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이러한 일들이 최근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이 되고 있고 국내 여러 지역에서도 마을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수렴하여 그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죠. 대부분의 지역의 사업에 공공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공공이 이를 대체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공이 사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래창작촌은 공공이 어떤 의지를 갖기 전부터 이미 예술인들이 무언가를 쌓아왔던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도시의 생산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다만 문래창작촌에서 예술과 기술이 결합하고 순환하는 형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래창작촌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이어야 합니다.

[박] 최서영 대표님이 「사이다」 마을 잡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한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마을 공동체 실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의 장으로서 현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려 하는지를 드러내어 보여주고자 하는 마을의 실험이었고, 이로부터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생산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의 전환을 꿈꾸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래동에서 세 번 이사했는데요, 마지막 건물주에게 쫓겨나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예술 순환'의 문제였습니다. 예술인으로서, 공간 운영자로서 최근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술순환기금 조성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민되었습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에서도 '예술 순환'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담겨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방법을 모색하였고 최근 기술인, 주민, 예술인 이 세 주체들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마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에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 기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영등포문화재단은 마을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이를 아카이빙 해야 할까요?

[신]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술술랩 건물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술술랩 건물에서 살다가 주변으로 이사하신 분들, 살진 않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30여 분을 취재했고, 그걸 가지고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최]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손끝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생활 안에서 없어지는 것들이죠. 언어를 수집하는 작업은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편리함을 추구하고 돈을 좇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에도 한계가 올 것입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고 편리하지만 뭐 때문에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아카이빙 된 기록의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영등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80세 넘으신 어느 할머니로부터 소싯적 영등포의 한 공장에 다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직공장이 돌아가고 있던 그 시절 영등포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와 일을 하던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영등포에 와서 뭔가를 기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영등포가 무서운 곳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유흥가가 즐비하고 술 먹으러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록되어야 할 개인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영등포인 것 같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에서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 영등포문화재단은 마을을 기록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적인 것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미 영등포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해 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계신 박지원 대표님, 신동혁 작가님도 해 오셨던 일이고요. 이번에 진행된 김보배 작가님의 <문래간판스타 Part.2> 프로젝트는 사라져가는 타이포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최] 기록을 하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기록을 보관할 기술적 지원, 공간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에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 많은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그것을 꺼내어 볼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박] 개인적으로 술술랩에 아카이브룸이 설치되어 상설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술술랩은 마을 주체들이 삶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공간, 개방성을 가지고 늘 변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 마을의 삶이 저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 안에서의 나의 삶이 기억되고 기록되는 일로부터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강] 영등포 안에는 도서관들이 여러 곳 있어 이미 지역기록을 발굴하고 마을 기록자들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인구의 1%, 약 3,800명의 마을 기록자들을 양성할 때까지 마을기록학교를 운영해보자고 도서관 담당자들과 얘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주민들의 아카이브 작업, 활동가들의 아카이브 작업, 예술인들의 아카이브 작업은 그 형태와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이 결합되어 생긴 말입니다. 대상과 취지에 맞게 아카이브의 형태를 진화시켜야겠죠.

[박] 문래창작촌이라는 마을 특성을 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예술적 방법으로 아카이브 되는 '아트카이브'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처음 진행했던 공모사업이었던 만큼 실험적인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셨거나 참여하셨던 분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려주세요.

[우]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제안사업이기에 참여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당연한데도요. 지원 사업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내용이 촘촘해졌고 분야 칸막이가 생겨서 참여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의 의미와 사업의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에 맞게 지원 사업의 형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생산도시리빙랩》에서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많은 규제와 규칙으로 내용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일단 등장하게 하고 공동체 실험을 경험하게 하자는 게 취지였어요.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이 열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참여자들의 관심사들이 방대하고 공통분모가 약하여 이들이 협의체로 묶이지 않았다는 점이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결과로서 어떤 협의체가 형성되었느냐에 대해서 굳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후에 이들은 스스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번 영등포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기존의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한 가지 전환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예술가의 삶을 지원하면 그 자체로 예술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이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훌륭하고 앞선 생각입니다.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은 정해진 결과와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박]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아도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서영 대표님이 이번 사업에 다양한 주체들의등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기록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COMMON'이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해당 장소와 지역을 벗어나 외부 사람들과 함께 삶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일이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와 또 다른 움직임을 만나게 되고 자극을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올해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기술인들이 이후에는 술술랩의 사업의 주체로 들어와서 새로운 케미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 저는 한편으로 예술인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게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열린 사업이라는 기조는 가져가되 사업의 목적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을 하거든요.

[박]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담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나름의 평가들로부터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세부 프로젝트들이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충실해 이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이 자리가 아카이빙 되어서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을 새로운 시선으로 발견하고 기록되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 다른 문화재단이나 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시각예술에 편중되는 면이 있어요. 출판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늘 시각이 우선되는 느낌입니다.

[박] 시각예술이 시각적으로 강력한 매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사업을 살펴보면 다양한 매체 장르의 분야를 두루 다루고 이었다 생각합니다.

[신] 저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선 수집하고, 이를 전시라는 매체를 통하여 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들었던 작업은 전시가 아닌 연극으로서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 자체로 극작의 좋은 소재였거든요. 그런데도 공연 예술로 이것을 다룰 수 없었던 것은 예산의 규모나 훈련 기간 등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술술랩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각자가 기대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 술술랩은 공유제이자 공유지대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실험하는 장소여야 하죠. 또한 그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술술랩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야 하고 아이들도 찾아올 수 있어야죠.

[우]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면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 간의 차이를 느꼈고, 과연 어느 지점이 가르마일까 고민했어요. 우선 지역을 만나고 공공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분야를 공공 지대로 끌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예술의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최] 요즘 사람들 사는 게 '일'만 있는 것 같아요. 노는 거 좋아하는 민족인데 점점 사람들의 일상이 일에 매몰되어 가요.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와 보니 지역에 제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느꼈어요. 동네에서 저의 자리가 없었던 거죠. 술술랩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이 그 길을 놓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요.

[우] 홀로 해오던 작업을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은 엄청 불편한 일이지만 많은 자극과 배움이 됩니다. <문래동원정기> 후기를 살펴보면 '작가들은 작업의 객관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어렵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거나 작업을 공유하고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작자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자원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김영하 소설가는 외국에 작가협회가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출판계는 워낙 돈 떼이는 일이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작가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예술인들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협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신] 문래동에는 분리된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여러 주체들을 소통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카이빙도 중요하고 예술작업도 중요하지만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강] 올해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을 통해 등장한 프로젝트들이 이미 지역에 필요한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술랩은 앞으로 <문래의 언어>처럼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언덕 위의 아루스'의 탄생과 성장>처럼 아이들, 주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적 가치를 실험하는 곳인데 아이들이 이곳에 못 온다는 건 이상한 말입니다. 또한 술술랩은 <문래동 이동장치 연구>처럼 예술과 기술이 결합되는 형태의 작업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박] 제 경험으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행해져 왔던 마을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 공간 안에 담긴다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번에 만난 13개의 프로젝트들을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성을 띤 공간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흥미로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박] 문래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무덤 파고 있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침병 노릇을 하고 가장 먼저 쫓겨날 사람은 바로 우리다'라고 이웃 작가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는데요, 문래창작촌에서 예술인으로서 잘 살아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술인이든 소공인이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지 보여주는 일로부터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생산해 내는 일이 마을에 닥친 위기를 막아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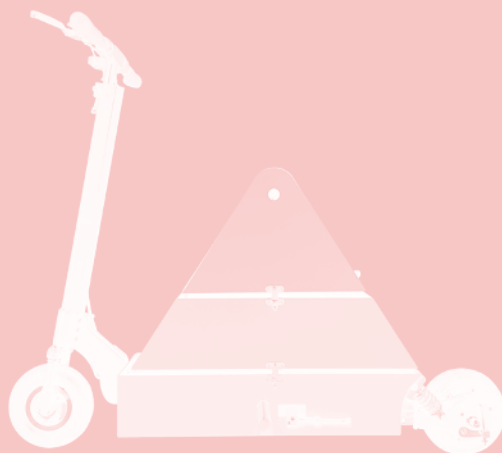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포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아카이빙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부디 술술랩이 누구나 찾아와서 맘껏 꿈꾸고 실험할 수 있는, 고착되지 않는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최]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알고 보면 개발사업인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는 이들 중에는 시설과 건축, 공학분야의 사람들이 많죠. 이분들을 만나보면 인문학적 이야기가 나오는 걸 힘들어하시거든요. 하지만 무리한 '재생'의 시도는 절대로 사회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기록의 과정이 들어가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주민들이 기록자로 성장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면 더 나은 재생사업이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로 지역이 상업화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상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상업화로 인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몰리는 상황은 경계해야 합니다. 감천마을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온 상업공간이 마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 하거든요.

[강]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공공적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땅값이나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 장치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몰립니다. 이 구조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자산화'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기금이 필요하고 그 기금이 시민자산으로서 자리 잡게 해줘야 해요. 그래야 마을의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논의만 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문래동에서 관련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요. 주변의 여건이 어떠한든, 제가 참여하는 사업의 예산이 크든 작든, 제가 스스로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성실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포럼은 문래창작촌과 경인로 일대 지역에서 이뤄진 기록의 예술 활동과 다른 지역의 기록 이야기를 함께 소개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프로젝트 참여자와 다른 지역에서 기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 지역에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왜 기록을 하는지, 기록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포럼은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되었고 영등포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모든 발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0. 2. 14. (금) 오후 2~5시
서울하우징랩 H-Hall



1부

사례
발견

왜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인가
강원재(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생산도시리빙랩 활동 이야기
우민희(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기록

문래동에서 가장 멋진 것
'문래간판스타'
김보배(코-대표)

떠오는 사람들 —
문래의 언어를 찾아서
신동혁(글자가온다 대표)

공장 안 밖 — 5와 1, 1, 1, ...
강수경(기획/작가)

우리들의 이야기
김진(작가)

캠퍼스, 여성, 나무
김진주(미술작가, 기억하는 용기 대표)

정릉 마을 기억을 기록으로
최연희(정말기록당 활동가)

Q&A

2부

발제, 토론
방향

왜 우리는 아카이빙을
이야기하는가
좌장: 손동유((협)아카이빙네트워크
연구원 원장)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문래아카이브
박지원(대안예술공간이포 대표)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 —
수원 골목잡지 「사이다」를
중심으로
최서영, ((주)더페이퍼 대표)

지역 문화 자원의 기록과 공유의
다양한 방식과 사례 —
깡깡이 예술 마을을 중심으로
이승욱(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토론 및 Q&A

라이브 영상





온라인 갤러리 사이트

2019년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지원사업, 인터뷰 영상 및 사진, 포럼 자료집과 아카이빙북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www.sulsul.org/archive





WITHARUS
 WITHARUS
 WITHARUS

고독한 밤
 장마에
 밤
 밤
 밤

문래의 언어
 새로운 사생활들

2019. 11. 16 (토) - 17 (일)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2019. 11. 8 (금) - 17 (일) PM 12-8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11 NOV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P-DNA
 WP-DNA
 WP-DNA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WITHARUS

2019. 11. 8 (금) - 17 (일) PM 12-8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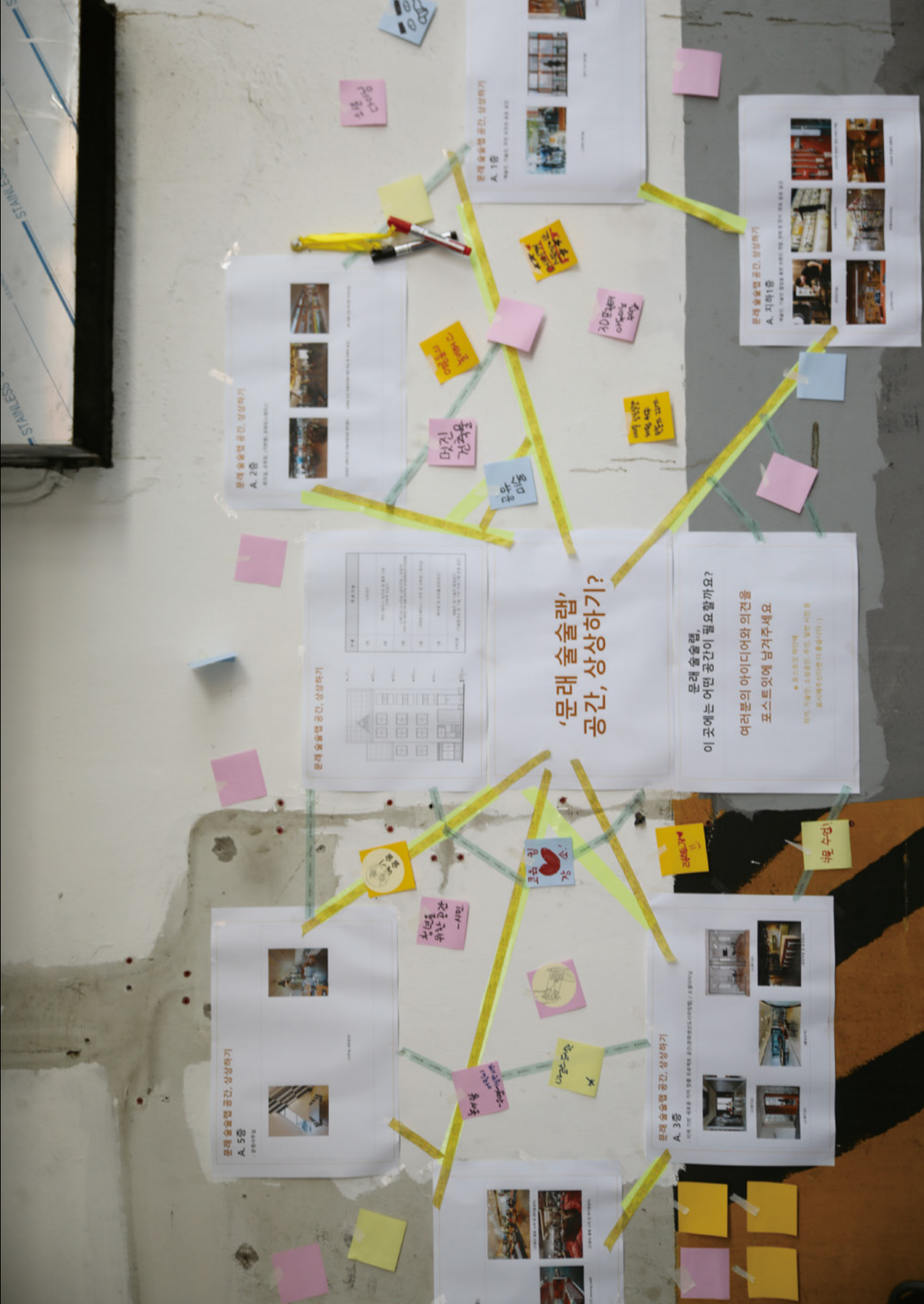
2019. 10. 25 (금) - 15 (일) PM 12-8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2019. 11. 16 (토) - 17 (일)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2019. 11. 16 (토) - 17 (일)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2019. 11. 16 (토) - 17 (일)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Vol.1

술술

발행일 2020. 2. 28

발행처 영등포문화재단

발행인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재

기획·실행 문화적도시재생 총괄기획자
박지원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문화정책파트
박만식, 장혜윤, 우민희, 장선정, 황지예

에디터 정윤희, 정혜진

디자인 패브릭 studiofabric.kr

ISBN 979-11-969898-0-4 (03600)
비매품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07258 서울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 3가)

www.ydpcf.or.kr

www.facebook.com/ydpcf

T. 02 2670 4020

F. 02 2068 9496

© 2020 영등포문화재단

이 책의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영리적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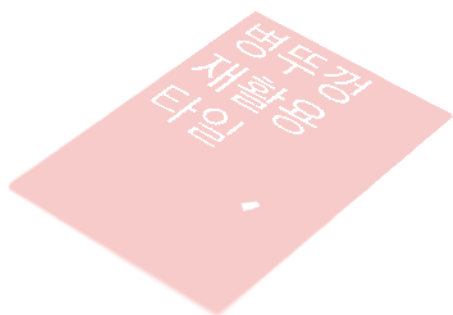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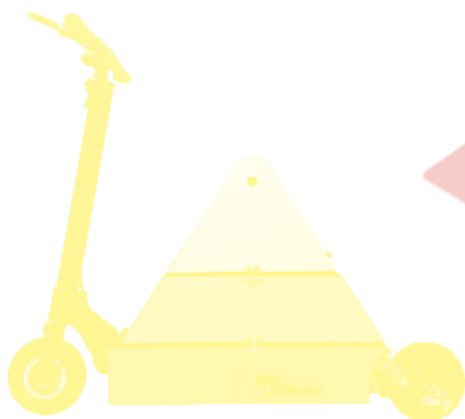
* 이 책은 2019 문화적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라다 람기통리프 탐지라파아 람트파 타타시



ISBN 979-11-969898-0-4 (03600) 비매품



문래가치함전소
만원

